







응모요령

(문자격 : 전국 사진애호가 (외국인 환영)

품료:1인당2만원 품수: 1인당 4점 이내

군신을 홍보할 수 있는 작품(군산사계절, 고군산 열도, 은파호수공원 풍 강, 금강하구인, 금강철새, 새만큼, 동백대교, 시간여행축제, 군산이행).

군산의 전통문화 유적지, 주민의 생활상, 지역특산물 및 각종행사 스포츠 對사모습

군산의 심물미크, 시조(갈매기), 시화(동백), 시목(은행나무)를 표현한 작품 풍규격 : 11° X 14° 컬러 및 흑백 (테두리 불가, 규격위반시 심사 제외) 처 : 군산시 축동1길 6-3 (수송동) 피런테빌딩과 (사)사업군산지부

사무국장 010-3676-1119, 지부장 010-4610-9007

(푼요랑: 작품 뒷면에 작품명, 주소 (우편변호), 성명, 전화변호, 촬영장소를 달해 명기할 것

실사 및 전시

수기간: 2004년 12월 2일(월) 소인유효

사일시 : 추후통보

심사장소 : 군산 명광여고 강당

실사性(표) 추후통보

전시기간: 2004년 12월 20일(금)-31일(회) 전시장소 : 군산 은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

급상 1점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상 및 성급 100만원

은상 2점 : 군산시장 성장 및 성급 30만원. 군산시의장 성장 및 성급 30만원

동상 3점 : (사)한국예홍 군산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가작 5점 : (사)한국사진작가법회 군산지부장 상장 및 상금 각 10만원 정러상 5점 : (시)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장 상금 각 10만원

입 선 40점 : (시)한국사진적기협회 군산지부장 상장

기타사항

- 입상 및 입선작은 (사)한국사진작기협회 입회점수 인정함.
- 동일 작품이나 유사작으로 판명시 낙선 및 상권 취소됨.
- 금은동가작 수상작은 시상식 때 의무적으로 참석함.
- 입상 , 입선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향후 5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선) 작품은 출품 파일을 7일안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
-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E-MAIL: bebe9006@naver.com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추천 공고

사진예술 발전에 헌신한 작가 및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사진문화상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분야

- ① 공 로 상 : 20년 이상 사단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업적이 있는 자로서 학술, 교육, 평론, 창작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 ② 작품상: 당해 연도 회원전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출품한 회원. 단 최근 5년간의 작품을 고려한다.
- ③ **출 판 상**: 우리나라 사진문화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출판물(단행본, 작품집, 정기간행물, 기타) 을 저작한 사람 또는 단체. 단. 출판물은 최근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한다.
- ④ 특별공로상: 사단에 헌신하여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 ⑤ 발전공로상: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광역 시.도 지회 및 지부 중 6개 이내의 단체
- ⑥ 회 원 표 창 : 지회·지부에서 추천하며 한 해 동안 지회·지부 및 협회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지대한자 (지회·지부장, 임원 추천서 필수)

마감일

2025년 1월 17일(금) 협회 도착분에 한함

진 행 절 차

- -접수 된 추천서에 대하여 한국사진문화상 제6조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상자 선정
- -선정된 수상자는 2025 PASK AWARDs에서 시상 예정

Contents

December 2024 Vol.533

Cover Story

장옌 江燕 - **쌍생** 双生

양밍 Yang Ming 杨明 - 걸어다니는 마음의 이미지 杨明-行走的心像 杨明-行走的心像, I Think I Am A Tree

주저우 Zhou Zhou 周洲

- Mobius Gallery 莫比乌斯画廊

03 Headnote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3() 전시광고

구박갤러리 포트폴리오 초대전 빛과 그림자의 시 詩 해운대에 드리운 시간 - 하병철(부산)

34 전시광고

아뜰리에리 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 & Moment #3 흰밤을 지새다 - 김민주(구미)

38 전시광고

대구 미래사우회 회원전 9인의 "바다 이야기" - 미래사우회(대구)

42 전시광고

Gallery 예·지·향 초대작가전 The Beautiful Earth 아름다운 지구 진주목걸이가 드리워진 아름다운 풍경 - 이호연(인천)

46 특집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한강

중국작가전

88서울올림픽

일상사진+청소년사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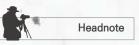
영월지자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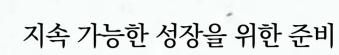
대학교류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접어들며,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운영자문위원단 및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는 협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좋은 의견을 나눠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저는 우리 협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로 단기적인 목표와 성과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이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한국 사진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굳건히 자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실천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 역시 협회의 성장에 있어 귀중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025년은 협회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더 나은 운영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협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2024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 차 열

December 2024 HANKOOKSAJIN 3

Contents

December 2024 Vol.533







74 지상전

인생고해 거칠어서 더 아름답다 노이즈 NOISE 재발견 - 김성백(광주)

78 Photo Travel

하루 두번 2.3km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제부도' - 임윤식(송파구)

82 Review & Preview

안준, 정현목 2인전

New Pictures - 김재훈

사진강좌

88 Travel destination

'미제 좋아' 탄생한 듣보잡 국명 월남은 어쩌다 베트남이 되었나 - 최승언

협회소식

92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4년 제5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04 Gallery

미래사우회 사진전 외

출판위원 | 김명옥, 박경서, 이점용, 최영태, 황길연 사무처장 | 김형준 편집장 | 노성진(010-3387-0244)

등록일 | 2017년 4월 14일 등록번호 양천, 라00087

제작 | 도서출판 피알에이드(02-2264-1996) 알림 | 회보「한국사진」에 실린 상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자의

설념 | 외모 ' 안국사신」에 실턴 정업광고와 글은 광고주와 필시의 견해이며, 본 협회나 편집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701호

※ 투고안내

한국사지 LTww.pask.net

전화 | 02-2655-3131

팩스 | 02-2655-3130

URL | http://www.pask.net

펴낸날 | 2024년 12월 1일

위원장 | 백만종

출판팀장 | 손석윤

E-mail | koreapask@daum.net

웹하드 | ID : kpask / PW : kpask

펴낸곳 |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표지 및 내지원고는 편집디자인 중 작가노트 또는 작품원고 일부는 편집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1년 10만원 계좌 국민은행 031-25-0001-56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사무처로 입금 확인하시고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구독 및 배송관련 문의 02-2655-3131 웹하드 | ID: kpask / PW: kpask





한국사진작가협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접수마감 **2025년 1월 17일(금)** (도착분)

작품내용 8"×10"(자유작)

출 품 수 1인 2점 이내

참가자격 2024년 12월 31일 기준 협회 정·준회원

시 상 전국회원작품지상전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우수작품상 수상자 선정

① 출품인수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명을 선정

② 출품인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를 선정

접수기간 2025년 1월 17일(금) (도착분)

출 품 료 1인당 40,000원 (최고급 작품집 증정) - 작품집은 소속 지회·지부로 발송

접 수 처 07995)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목동, 예술인회관) 1701호 한국사진작가협회

파일접수 이메일 koreapask@daum.net

※작품접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한 지회·지부를 통해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별접수도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전화문의 02-2655-3131~3

출품요령

작품 뒷면에 작품명, 회원명, 지회·지부명, 주소, 연락처, E-mail을 필히 기재 후 부착하여 제출 할 것.

수상자는 2025년 PASK AWARDs에서 시상하고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1점을 부여,

수상작품은 월간 한국사진에 작품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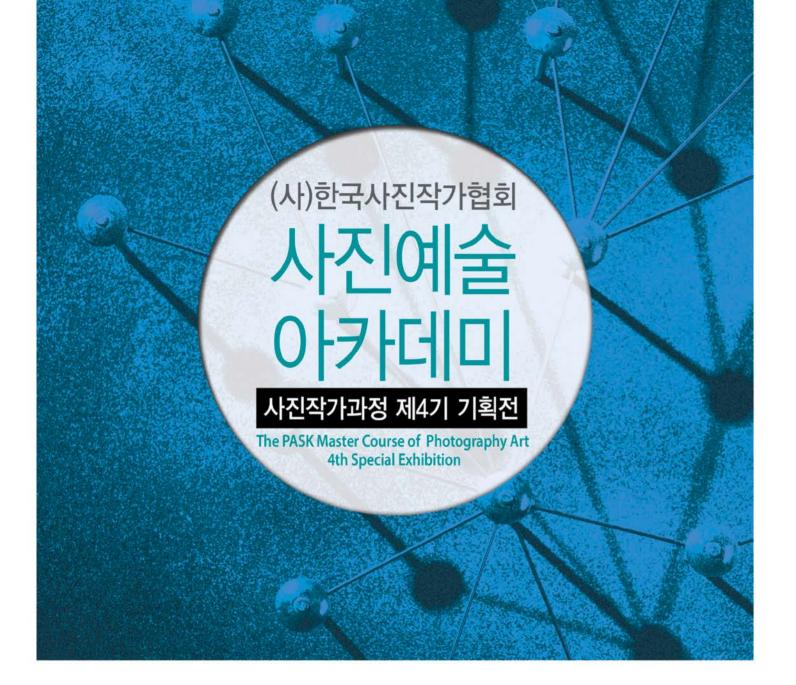
기타사항 · 작품은 발표, 미발표 작품으로 구분하여 접수하며 수상작은 미발표작에 한하여 선정함

· 발표작을 미발표작으로 기재하여 선정이 될 경우 상권을 취소하며 문제작으로 분류 조치함

· 파일로 접수하는 경우 작품집에는 수록되나 우수작품상 심사에는 미포함

· 작품 접수와 동시에 출품자명으로 출품료를 송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작품은 회원 작품집에 수록되지 않음

※ 입금계<mark>좌번호:국민은행 878301-01-290242</mark>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4기 기획전시**

2024. 12. 11 ~ 12. 17

Gallery Lamer 3F (6,7 exhibition room)

Opening_2024.12.11(wed) pm15:00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5기 모집

(2025년 3월 개강 예정 / 본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신청 자격요건

- 1. 비회원의 경우 : 본 협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 2. 회원의 경우: 사진전문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모집인원

50명 이내(선착순 마감)

교육과정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 : 학기제 수업, 1.2학기제 1년 과정, 대면 및 온라인 강의 진행
- : 1학기, 2학기 과목은 최종 교육과목 조율에 따른 결정 후 본 협회 홈페이지 공지예정

수강기간 (단, 협회 상황에 따라 개강 및 종강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1학기 개강 2025년 3월 ~ 7월 예정 (단, 본 협회 긴급 행사 시 변경될 수 있음) 2학기 개강 2025년 8월 ~ 12월 예정 졸업전시회 2025년 12월 예정

수강방법 및 수료조건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실 대면 또는 비대면 수업 진행 졸업작품전시 필수 참여 출석 80%이상 참여

학기별 수강료: 1학기당 일금 3,000,000원 (2학기 총 6,000,000원)

카드납부 가능

입금계좌: 국민은행 878301-01-289114,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입금기한: 2025년 3월 개강 이전까지

사진예술 아카데미 작가과정 제4기 강의장소 안내

이론수업

- 1. 목동, 예술인회관 9층 강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 2. 크리틱 및 실습수업 장소는 추후 공지

실습수업

- 1.추후 공지예정
- 2.출사 (상황에 따라 조율)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02-2655-3131

이메일 문의 pask@pask.net / koreapask@daum.net

이론수업 시 부득이 대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수업 병행(zoom) 모든 강의 종료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수강 가능



能한국사진작가협회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금모금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 협회가 이 만큼 발전하였고 명실상부한 사진계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전개하는 여러 활동 중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학사업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까지 이어간다면 사진예술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협회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1계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장학금 기탁을 통해 장학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함께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심 재 안

장학기금 관리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 350만원 이상 기탁자는 운영위원으로 위촉 가능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짐

② 자문위원단

- 2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패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단 회의 참여 가능

③ 참여위원단

- 100만원 이상의 기탁자
- 이사장의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위원단에 참여 가능

④ 10만원 ~ 100만원 미만

- 이사장의 감사장 수여
- 위원장의 감사장 수여

〈전체 사진작가 1계좌 갖기 운동〉

1계좌를 100,000원으로 하여 장학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숭고한 마음이 모여 후진들을 위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기금 계좌 국민은행 293201-04-258248 예금주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운영위원을 모십니다.

장학기금을 관리하고 심의 집행하기 위한 장학위원회의 운영위원을 모시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어 협회의 장학사업이 커지고 재단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30대 유수찬 이사장 3,000만원 기탁

2024년 12월 01일 기준

■ 2023년 장학금 기탁

한재원 이사 1.000만원

홍창일 고문 500만원

황일영 장학위 부위원장 500만원

이순옥 장학위원 500만원

이순희 장학위원 500만원

이향룡 부이사장 300만원

김서윤 이사 300만원

임만덕 장학위 부위원장 200만원

정종관 이사 100만원

■ 2024년 장학금 기탁

심재안 장학위원회 위원장 1,000만원

최임순 이사 500만원

임병훈 서울지회 부지회장 200만원

황길연이사 200만원

이재윤 청주지부 회원 10만원

조월신 이사 100만원

권선자 드론사진분과위원장 100만원

이성록 이사 100만원

김윤식 운영자문위원 30만원

김재영 수중사진분과위원장 10만원

최연근 이사 100만원

김정식 초대작가위원회 위원장 10만원

오상관 이사 100만원

장창근 이사 30만원

김의배 홍보위원회 위원장 30만원

박정순 종로구지부장 100만원

권영익 이사 100만원

이동규 예산지부장 20만원

한복례 남양주지부 회원 20만원

이덕만 본부감사 100만원 윤홍선 전)이사 100만원

이상영 이사 400만원

이연화 꽃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최복수 이사 30만원

류중석 의왕지부 회원 100만원

박경서 이사 100만원

설병갑이사 10만원

정연수 이사 20만원

정홍재 구미지부장 10만원 백승의 장학위 감사 350만원

이정애 구미지부 사무국장 10만원 이병화 장학위 부위원장 350만원

김정금 이사 500만원

백만종 부이사장 150만원

이재수 이사 50만원

황양운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20만원

오충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서효석 이사 100만원

김경남 전주지부 회원 20만원 김명주 구미지부 회원 10만원

신경애 이사 10만원

오만태 이사 10만원

정연식 전주지부 회원 30만원

이명수 이사 100만원

김형준 본부 사무처장 100만원

윤영녀 디지털아트분과위원장 350만원

윤보상 이사 50만원

김병주 본부 사무처 과장 10만원

이상희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안영민 본부 사무처 직원 10만원

김서윤 이사 100만원

김요한 본부 사무처 30만원

배택수 상임이사 100만원

이성길 산악사진분과위원장 3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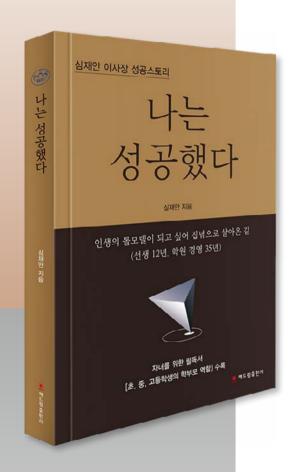
최영태 이사 30만원

강동구지부 50만원

이흥기 이사 30만원

현재 잔액: 202,340,895원

じがむすべいですがい



저자심 재 안

- · 재일영재교육재단 이사장
- · 민주평동 12, 13기 회장
- · 송파문화원 8대 원장
- ·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 · 대통령표창 수상
- · 장영실 교육문화대상 수상
- ·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심재안 장학기금관리위원장 자전 에세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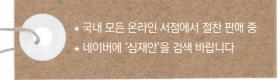
'나는 성공했다'

성공의 세 가지 열쇠.... 자신감, 집념, 연구

지난 17년 동안, 수천 종의 책을 만들면서 진심으로 저자를 존경해보기는 처음이다. 그 주인공은 자전 에세이집 '나는 성공했다'를 출간한 송파구 제일영재입시학원 심재안 이사장이다. 이 책의 원고를 읽기 전, 제목에서부터, '아, 이 폭발적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여원고 내용이 몹시 궁금하였다.

심재안 이사장의 이 성공 스토리에서 내가 배운 첫 번째가 자신감이요, 두 번째가 집념이요, 세 번째가 철저한 연구와 준비였다. 심재안 이사장 스스로, '인생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 집념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표현한다. 그 삶의 궤적들이 격정적으로 출렁이는 책이 '나는 성공했다'이다. 책을 읽는 내내 자신을 한없이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백이면 백 모두성공하고 싶은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심재안 이사장은 우리나라 입시 열풍이 한창일 때 평범한 학원 강사로 시작하여, 자신감과 집념과 연구로 끝내는 유명한 스타강사(심재봉)로 자리매김하였고, 잠시 부침을 거듭하다가 교직원 300여 명의 제일영재입시학원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 심재안 이사장은 이 책을 펴내면서 "필자처럼 성공하기 위한 집념의 목표는 철저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도 집념과 소통의 나날이 계속되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책을 읽고 나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정신적 무장이 훨씬 강하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DCNDO: USEWUX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 (흥국생명 1호별관, 2층) 제품 www.benrokorea.co.kr 제품

젤 02-775-6681

BENRO®

CYAN BIRD NAPOLEON

벤로 사이언버드 FS30 나폴레옹 카본 삼각대





BENRO PREMIUM MAGNETIC FILTER

마그네틱 필터의 탑클라스 벤로 자석필터 시리즈





타사대비 2배이상 자력



발유,발수 2염방지 코팅



최상등 광학기술



선 적외선 울트

ULTRA SLIM FRAME

울트라 슬림 픽터 프게인





H&Y

HD EV®

전세계 최초! 업계 유일! **스크류**에 **마그네틱**을 더한 필터!







Geared Head

3D/4D 기어 모션으로 원하는 모든 각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수평, 수직, 틸트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며 편리한 촬영을 지원하는 레오포토 기어헤드



3D/4D 정밀 기어 컨트롤 **FAST** 빠른 컨트롤

360° 파노라마 시스템







G3

G4

G4 PRO

제품 높이	96mm	108mm	130mm
제품 무게	450g	690g	820g
베이스 직경	50mm	60mm	60mm
나사 규격	3/8"	3/8"	3/8"
최대 하중	12kg	20kg	2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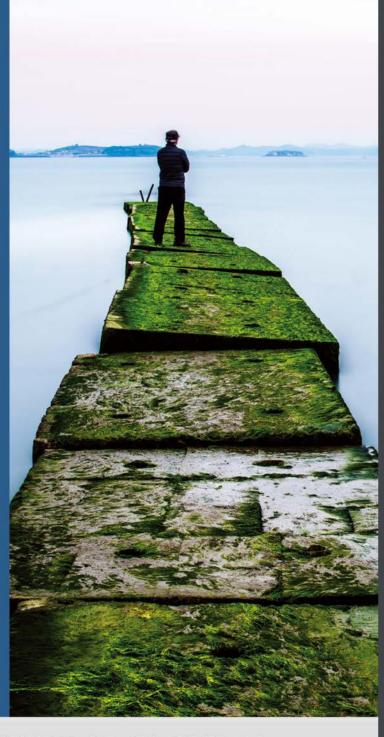
대한민국 사진축전

전시작 출력부터 전시액자제작

- 회원전 및 사진작품전 대행

Artluxe® **E

아트룩스는 천단 소재 기업 존스미디어(주)의 고품격 디지털 프린팅 솔류션으로 구성된 혁신적이고 고급스러운 기능으로 더욱 우아하고 다양하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실내, 실외 자외선/습기에 강한 갤러리 전시액자, 사진출력 및 포토패널 시스템입니다



출력 전시계획-한지·페브릭·캔버스출력

PNP 아트룩스®



Artiuxe CRYSTAL CLASSE 크리스탈클레 고광택을 유지하면서 조명반사를 줄여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힙니다.



아크릴보다 진한 고광택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힙니다.



실버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작품에 차원이 다른 표현이 가능합니다



광택과 조명반사를 없애고 작품의 선명도와 집중도를 높여 품격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Artluxe CANVAS 해설 유화그림 같은 느낌으로 작품의 선명함을 한층 높합니다



모래알같은 잔잔한 표면으로 작품에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한사전, 시.도전, 사진축전, 갤러리, 야외전시작품 제작 대행 예약받습니다 -

* 작품 보정작업도 가능합니다. 파일전송(이메일): bebe9006@naver.com) *



Tel: 02-2653-9007 Mobile: 010-4610-9007

[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베너광고, 월간 한국사진 광고 중]

FEEL YOUR SPACE
TOTAL PREMIUM PHOTO PANEL SYSTEM

이것이 진정한 아트다!

M247+ >+ 程また 生モス! _ 01な...

궁극의 사진표현력, 미세한 디테일까지...

두진아트만의 미디어별 사진이미지 전체&부분 정밀보정 프로파일 적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동호회 그룹전 개인전 사진인화&액자제작 납품실적 업계1위

원목 띄움액자 아트페블릭인화&한지인화&아크릴디아섹적용





원목띄움 전시액자 바로가기







최신 트렌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원목띠움 액자

2024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참여작가 작품제작,설치,철수,전국배송 문의

사진작가의 입문. 두진아트와 함께..

전국 사진공모전 접수대행

가격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큐알코드를 확인하세요. 아래 큐알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대시고 URL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두진액자 쇼핑몰

김기현 갤러리

원목띄움 전시액자

두진아트 공모전

두진아트 쇼핑몰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355 (신천동496번지)

NAVER 두진아트

사진전시 실적 업계 1위

 $oldsymbol{1}$ 만명 전문사진가의 선택! 사진전시 실적 업계 $oldsymbol{1}$ 위 두진아트

개인전 회원전 그룹전 사진전시는 두진아트에서 최신 트렌드 작품액자로 준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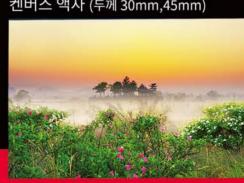
D5띄움 액자 (화이트,우드,월럿,블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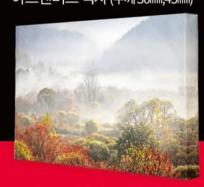




켄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아트켄버스 액자 (두께 30mm,45mm)









고광택 디아섹



지부행사용 소품액자 (화이트,우드,월럿,불랙).사이즈(3R,4R,5R,6R,8R,1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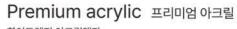
아뜨레는 전시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진 작가님들과 함께합니다. 전시회 사진출력부터 액자까지 한번에 안성맞춤 1152210 😵 T_ 1544-2188 **%**arttre M_ 010-3467-3513 Webhard_ ID_arttre PW_8108 CUSTOMER 정 덕 원 1공장.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9길 21 2공장. 경기도 확성시 황남읍 황봉로 28 이뜨레

ARTTRE FRAME

Arc diasec 아크디아섹 고품격 프리미엄 아크릴액자









화이트엣지 아크릴액자



Gallery frame <u>ੂ</u>ਪੁਰੀਪਥ 신개념 랩핑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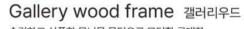


Canvas frame 캔버스랩

은은한 색감과 패브릭의 질감이 매력적인 캔버스액자

Black wood frame 블랙우드 고품격 프레임액자









슬림하고 심플한 무늬목 몰딩으로 모던함 극대화





사진여행의 시작

포토투어가 작가 여려분의 특별한 사진여행을 안내합니다. 감동과 추억이 간직되는 여행을 만들겠습니다.





- 1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중국 패상 겨울 촬영
- 2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숨바섬 촬영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3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노르웨이 로포텐 오로라 촬영
- 4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인도네시아 숨바섬 촬영
- 5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6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이탈리아 돌로미티 촬영
- 7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8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9월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 아이슬란드 가을 촬영 -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1차)
- 10월 체코 남모라비 가을 단풍 촬영(2차)
- 11월 베트남 장노층 촬영(World Photo)
- 12월 남인도 차발 촬영(World Photo) - 베트남 장노출 촬영(World Photo)







객실 + 리프트 + 장비렌탈

2. 조식패키지

150,000 BPH

객실 + 조식뷔페

86,000원부터

정상가 440,000원

〈할인권 8쯤〉

장비렌탈 35% · 발왕산 관광케이블카 30% 공룡해양랜드 20% · 용평워터파크 30% 애니포레 20% · 더 샬레 10% · 모나 베이커리 10%

- 1, 모나용평홈페이지 접속(www.yongpyong.co.kr)
- 2. 단체행사 → 제휴사예약 → 제휴사패키지 선택
- 3. 고객번호 입력 후 객실 선택 (고객번호: 1190519



01. 모나 용평 홈페이지 접속 객실 레저/식음 워터파크 골프 스키/보드 단체행사 고객센터 통합에서 | 유명을



🧹 03. 제휴사 패키지 선택





MONA YONG PYONG

신탁등재는 내 사진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신탁자 등재 절차에 따라 등록이 가능!

본 협회는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진저작권자인 본 협회 회원들의 사진저작물 침해 방지의 최선은 신탁등재로 사진저작물 침해시 최선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협회 회원만으로도 신탁등재를 희망하는 누구든 신탁등재만으로도 신탁자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탁등재 안내를 드리오니 순서에 따라 등재시 사진저작물 권리침해 방지 및 저작물 보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탁등재 등록이 가능하며, 사진저작권자로서 신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권 신탁등재 전산화 등록방법





-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1
- : 본 협회 홈페이지 접속
- : 로그인 창에 회원번호, 비밀번호 로그인 실행
- : 하단 사진저작권자 신탁등록 베너광고 클릭

-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2
- :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KOLAA 이미지뱅크 신탁등록 이동
- : 신탁등재 개인정보 및 약관 숙지 요망
- : 최종 이용약관 동의 체크 후 오른쪽 확인 키 클릭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3

- : ①~⑤ 순번 대로 필수 입력사항,
- 단 ⑥번 필명은 선택사항
- : ⑦번 소속단체는 고정 값
- : ⑧~⑩번 입력 진행.
- : ⑪번은 전화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필수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4

- : ①번 해당 주민등록번호 입력
- : ②번 주소검색 클릭 후 주소팝업 검색창에 주소 입력 후 해당주소 클릭
- : ③~④번 순서대로 입력 진행



사진저작권자 신탁등재 전산프로그램 직접 등록절차 05

- : ①번 계좌번호 입력
- : ②~③번 해당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이미지 데이터 첨부
- : ④번 250자 이내의 개인 프로필 입력, 약력사항 위주
- : ⑤번 모든 입력사항 완료 후 가입하기 클릭
- ※ 신탁등재 전산 회원가입이 완료 후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 최종 등록승인 절차 완료 통지 후 코라 이미지(www.korraimage.com)로 접속 로그인 후 사진저작물등록이 가능합니다.
 - 1. [작가]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저작권자 등록 신탁등재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필수 기입 사항 입력 후 가입신청
 - 2. [관리자] 신청확인 후 기입정보 토대로 입회신청서 및 저작권위탁 신청서 각 1부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발송 (메일 미확인 시 작가분 연락처로 문자안내 및 유선 안내 드립니다.)
 - 3. [작가] 각 신청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관리자에게 회신
 - 4. [관리자] 확인 후 정회원 승인 (확인문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등재 담당자 070-4265-1500)
- 5. [작가] 코라이미지 사이트(www.korraimage.com) 저작물 등록 가능(최대 5개) 이후 추가 등록물은 본 협회 사진저작권 담당자에게 전달 또는 문의요망 (02-2655-3131)

월간 한국사진 표지 투고작을 모집합니다!

월간 한국사진 표지는 우리 협회의 얼굴입니다.

이에 표지투고 선정작 작가에게 더 많은 자부심과 혜택을 드리고자 표지 선정작가에게 30만원 사진창작활동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선정작가에게 책자는 5부만을 배부됩니다.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구상, 비구상 뿐만 아니라 현대사진 패러다임의 사진작품이 게재되어 월간 한국사진이 진정 대한민국 대표 사진전문 잡지로 사진예술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한 개선된 표지투고 선정 방식

- 1. 표지 작품성 강화를 위해 본 협회 회원이면 참여가능 / 2. 표지가 세로도판인 관계로 세로형 작품 및 작가노트 충실 요망 3. 투고작 심의 이사위원회 출판팀 심의 선정
- ※ 단, 최종 선정된 표지 원고는 월간지 작업시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형이 될 수 있음. (작품원본 변형을 원치 않을 시 투고 고려요망)
- ※ 단, 촬영데이터 (Capture Date & Time, Exposure Data S/F Camera, Lens, 장소, Focal Lengh, Filter, White Balans Temp, Develop Data, Merge(합성) 내용, Panorama, Bracketing(HDR,WB Focus), Interval, Time lapse, Inverted(반전), Tilting, Zooming, Panning, 장노출 등 모든 촬영기법 및 현상기법과 내용을 표지투고시 공개해야 함. 선정작에 한해서만 상세사항은 기재되며 미선정작은 공개되지 않음.

· 월간 한국사진 표지원고 투고 방법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kpask / 비밀번호 kpask 접속 후 → 올리기 전용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 투고자 성명 폴더 생성 후 작품2점 + 작품명, 작가노트, 촬영데이터 및 이력사항(연락처) 업로딩 요망 ※ 월간 한국사진 표지투고 마감일 전월 20일 마감입니다.



월간 한국사진 본문 지상전 또는 포토에세이 게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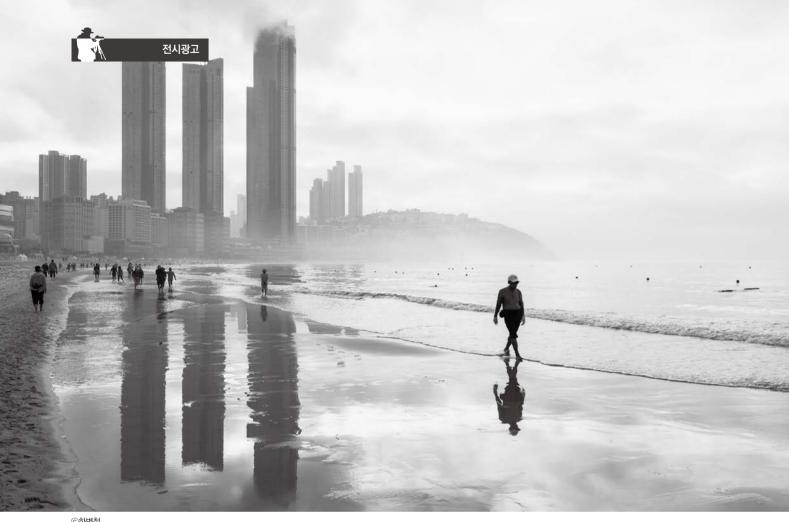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은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작품을 소개하여 직·간접으로 사진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 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지상전 또는 포토에세이 꼭지로 투고작 중 출판위원회 회의를 거쳐 게재되는 무료 게재와 본인의 작품세계를 1만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유료 게재로 진행됩니다. 게재를 희망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지상전 & 포토에세이 게재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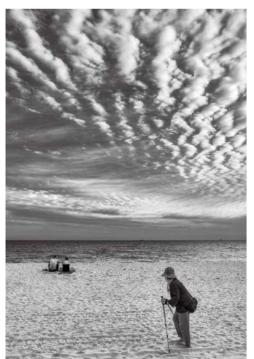
- 1. 대표작 8~12점, 작가노트 A4 1장 또는 1/2분량.
- 2. 작품제목, 작가명, 작가노트 삽입하여 제출요망.
- 3. 유료 게재 20만원 월간 한국사진 10권 제공, 4페이지 게재.
- 4. 데이터 올리는 곳
-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k / 패스워드 kpask 지상전(포토에세이)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지상전(포토에세이)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 5.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 6.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배정 및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게재 문의. 02-2655-3131 단, 유료게재 희망시 필히 편집장과 직접통화가 필요합니다.

※ 안내드립니다 - 12월 표지투고는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특별전 작품으로 선정된 관계로 2025년 1월 투고로 이월됨을 알려드립니다. 올 한해 2024년도 표지투고에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병철



하 병 철(부산)

전시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 12월 21일(토)

구박갤러리 포트폴리오 초대전

빛과 그림자의 시 詩 해운대에 드리운 시간

전시장소 구박갤러리(관람시간 오전 11시 ~ 오후 7시)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10/010-6608-6899)

전시작가 하병철(010-6280-5236)

작가와의 대화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3시

전시기획 부산문화예술연구소





ⓒ하병철

30 HANKOOKSAJIN December 2024 December 2024 HANKOOKSAJIN 31



ⓒ하병철

바다와 인간이 서로를 비춘다.

사람들의 실루엣은 해변에 길게 드리운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저 마다의 사연을 품고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 깊고 잔잔한 고독에 잠겨 파도가 들려주는 소리와 자아가 묵묵히 대화하듯, 무채색의 바다는 끝 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저마다의 내면에서 그 답을 찾아 나선다.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해운대는 나에게 단순한 관광지나 해수욕장이 아니다. 빛이 가만히 바다를 비추고, 그 빛에 의지해 형체를 드러내는 피사체는 나와 교감하며 순간을 공유한다.

바람부는 날이면 바다는 날카로운 톱니가 되고, 또 다른 날은 고요 속의 바다가 거울이 된다.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추억들 을 품고 있다.

그것이 해운대가 가진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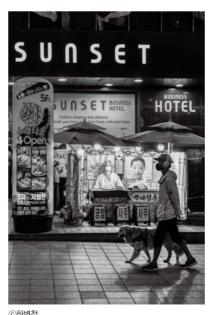
나는 그 순간들을 묵직한 질감의 모노톤으로 그려내고 싶다. 흑백의 대비 속에서 해운대의 흐르는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듯한 작업 을 통해, 해운대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내게 있어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일종의 기도와도

단지 해운대 해수욕장의 풍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과 바다의 기억을 담아내고자 한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과 평온이 전해지길 바란다.



시간이 파도를 타고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바다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비추고 고요한 수면 아래에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숨긴 채 모든 것을 포용한다.





ⓒ하병철

ⓒ하병철

32 HANKOOKSAJIN December 2024 December 2024 HANKOOKSAJIN 33







ⓒ김민주

어둠이 짙어질수록 세상은 고요해진다.

하늘은 무수한 별빛으로 수놓아져 밤의 장막을 더욱 신비롭게 드리운다. 그 사이로 오로라가 나타나 춤을 추듯 빛을 발하며, 세상을 감싸 앉는다.

내가 바라본 별빛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나라는 존재가 거대한 무한 속에서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들 때, 그 강렬한 실존의 찔림이 바로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 나오는 푼크툼(Punctum)적 요소로 다가왔다.

이 푼크툼은 별빛이 단순히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가 아득해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와 우주가 연결되는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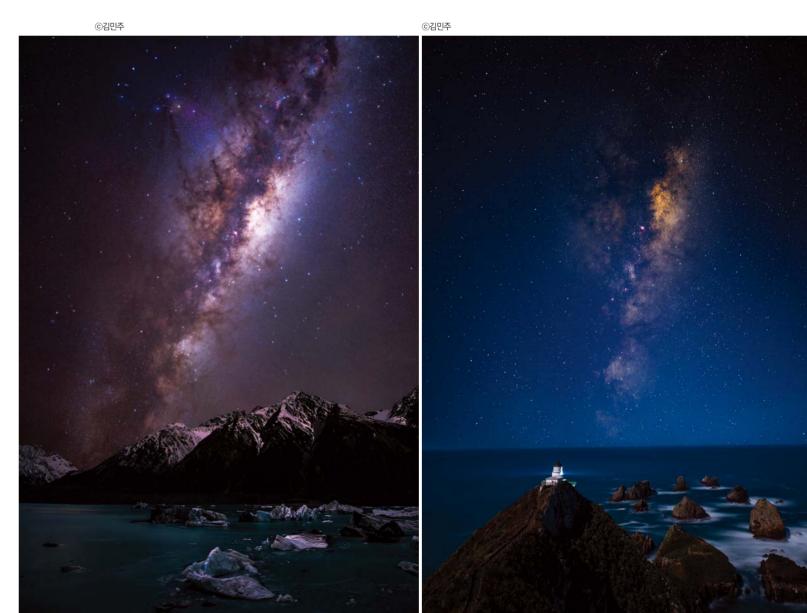
우주는 무한하지만, 그 무한 속에서 나라는 유일한 존재가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이 깊고도 고요하게 스며드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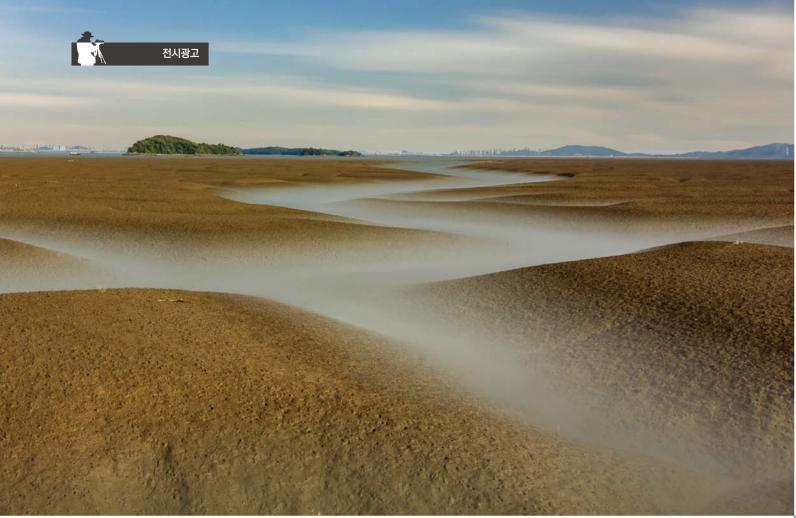
시간이 지나고, 깊고 어두운 밤은 새로운 꿈을 꾸며, 서서히 붉게 물들어 가는 아침의 첫인사를 맞는다.



©김민주

우주의 거대한 공간에 별들이 반짝이지만 별 하나는 한 점에 불과하다. 별 하나가 생명을 다 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면 우주 속에 한 점인 나 또한 우주와 연결되어 하나임을 깨닿는다. 어두운 하늘 빛을 내는 별 하나가 큰 우주임을, 나 자신 작은 점 하나가 또 우주를 품고 있음을 깨닿는다.





ⓒ이경화

대구 미래사우회 회원전 9인의 "바다 이야기"

미래사우회(대구)



이광진



©이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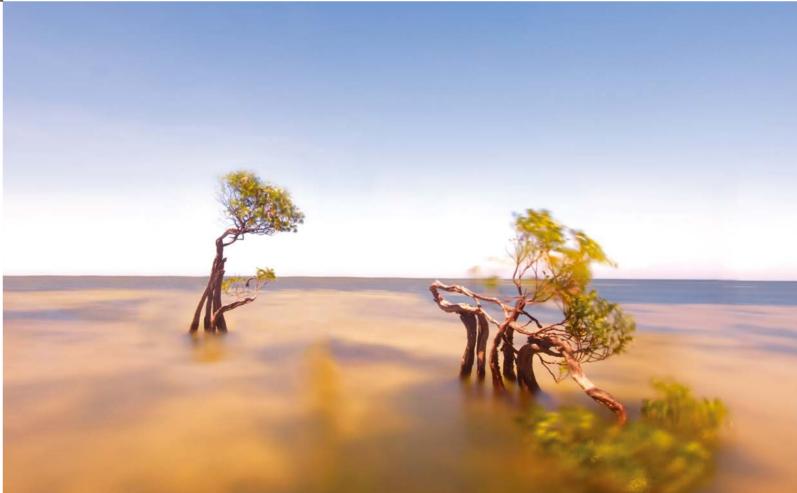
전시일시 2024년 12월 29일(일) ~ 2025년 1월 4일(토)

전시장소 갤러리 아르(대구 중구 동덕로 14길 58-10, 커피명가 카페 2F)

전시오프닝 2024년 12월 30일(월) 오후6시

참여작가 고문 한병률, 회장 박두천, 총무 이경화, 회원 강주석, 김양섭, 이흥기, 이광진, 이응민, 이도형

ⓒ이도형





2014년 창립한 대구 미래사우회 사진전이 2024년 12월 29일 대구 갤러리 아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총 9인의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며, 지난 2022년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단체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그동안 작업되었던 작품들 중 선별하여 9명의 개성있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우회는 지역 사진예술 발전과 시민들에게 사진예술의 다양함과 수준 높은 작품 관람 기회가 될 것이다.

2014년 창립 이후 미래사우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구사진작가 동우회 회원전 9회 참여하였으며, 2019년 회원전 대구중앙도서 관 가온갤러리, 2022년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DDP 단체전에 참여하며 대구 사진예술을 대표하는 동호회로 꾸준한 사진창작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바다는 천변만화한다. 폭풍처럼 울부짖다가도 어느새 잠자는 아기의 숨결처럼 평온해진다. 9사람의 작가들의 작품으로 표현된 바다는 그래서 아홉개의 감정선을 터치하며 관객에게 다가선다.



Gallery 예·지·향 초대작가전
The Beautiful Earth 아름다운 지구
지주목걸이가 드리워진
아름다운 풍경

이호연(인천)



전시일시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5일(토)

전시장소 Gallery 예·지·향 (경기도 의왕시 찬우물 1길 15)

개 전 식 2025년 1월 20일(월) 17:00

The second secon

전시작가 銘仙 李鎬淵 (hoyeon87326486@gmail.com)





ⓒ이호면 The source of blessings

태양계에는 보석처럼 귀한 지구가 있어 뭇 생명들이 살아가고 시시각각 태양의 궤도에 따라 빛나는 풍광들이 펼쳐진다. 나는 그 태양 빛 아래 형상화된 다채로운 이미지에 진주목걸이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호면_Happy 강화산성 남장대입니다. 강화산성 남장대에는 철종 임금에 대한 설화가 있습니다. 철종 임금이 왕위에 등극하기 전 강화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는데 귀양살이할 때 밤마다 '봉이'라는 처녀와 만나 이곳에서 사랑을 나눴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흔히 사진은 뺄셈이라고 합니다. 본 작가도 이에 수긍합니다. 그런데 '진주목걸이가 드리운 아름다운 풍경' 작품 작업을 하면서 나의 사진에 대한 기본개념이 사진은 덧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사진은 덧셈이다. 아름다운 풍경은 해가 있어야만 연출됩니다. 그런 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해의 고마움과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개 의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3시간 동안 인터벌로 해 망울을 촬영하여 스 텍으로 불러와 한 장의 해 망울 궤적을 만들고, 여기에 풍경을 병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창작된 작품을 '진주목걸이'라 고 본 작가는 명명했습니다.

본 작가는 '진주목걸이'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작업하고 있 습니다.

첫째로 '진주목걸이' 작업을 하는 풍경이 나와 관련이 있을 것 둘째로 '진주목걸이' 작업을 하는 풍경에 스토리가 있을 것

긴 시간 작업을 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것은 작업하는 풍경이 나 와 관련이 있다면 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반추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풍경이라면 그 스토리를 반추해 보면서 더욱 폭넓 은 스토리를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다양한 사진 장르 중에서 '진주목걸이' 작품 작업을 하는 본 작가는 작 업할 때마다 긴 시간 동안 본 작가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작품 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곤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 작가는 Gallery 예·지·향으로부터 초대작가로 초대되어 아래와 같이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44 HANKOOKSAJIN December 2024 December 2024 HANKOOKSAJIN 45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ll 2024 PASK KOREA Photo Festa

12.04 Wed - 12.08 Sun 2024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



2024 서울포토페스티벌 i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ll

주최 多耀한국사 진작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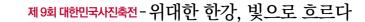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한강의 변화를 통해 발전된 대한민국의 발전 모습을 선보이는 특별기획전

위대한 한강, 빛으로 흐르다

전시작가

김부연 김승호 김용암 김정식 강태선 백수민 윤종성 이덕만 정두원 임현옥 조기창 홍창일

한강은 서울의 중심에서 흐르며 수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머금고, 서울의 역사적 변화를 지켜온 증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빛과 어둠이 어우러지는 한강과 그 주변의 야경을 통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작품들은 밤하늘 아래에서 한강이 보여주는 장엄한 풍경과 서울의 역동적인 발전상을 담아냈다.

한강의 물결은 서울의 빛을 담아 흘러가고, 스카이라인에 반사된 빛은 위대한 발전의 궤적을 그린다. 관람객들은 특별한 야경을 감상하며, 이 도시가 걸어온 눈부신 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특별 전시는 서울을 살아가고 한강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감동과 커다란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김부연



ⓒ강태선





ⓒ김정식



ⓒ백수민



ⓒ윤종성



©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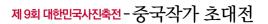
ⓒ김용암



ⓒ정유진



ⓒ김승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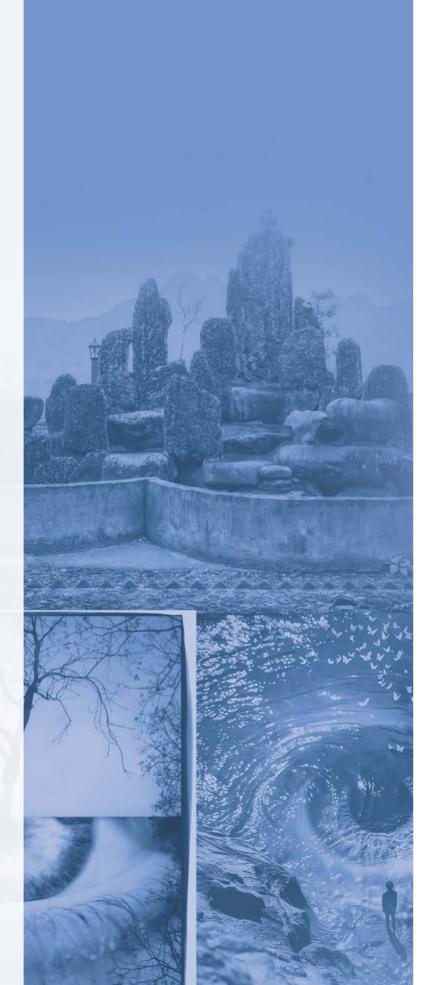
2024 제9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2024 PASK KOREA PHOLO Festa (중) 환경국시간(한) 2024 서울포토레스티벌 n aT 2024 Seoul Photo Festival in aT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중국작가 초대전 **영원, 불멸**

이번 사진축전에는 중국의 저명한 기성 사진작가 장옌, 왕화핑과 주목받는 청년작가 양밍, 리오저카이, 주저우를 초대해 특별 전시 '영원, 불멸'을 마련했다. 이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을 통해 영원하고 불멸한 가치를 표현하며,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 을 아우르는 성찰의 결과를 보여준다.

'영원, 불멸' 특별 초대전은 변화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들의 작품은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사진예술 로 승화되어 불멸의 기억으로 남는지 그려내며, 관람객들이 각자의 삶에서 느끼는 영원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끈다.



장옌 江燕

쌍생 双生



77 £







双生



양밍 Yang Ming 杨明 걸어다니는 마음의 이미지 ^{杨明-行走的心像}



杨明-行走的心像, I Think I Am A Tree



杨明-行走的心像, eye



杨明-行走的心像, One morning



Mobius Gallery 莫比乌斯画原



Mobius Gallery 莫比乌斯画廊

주저우 Zhou Zhou 周洲

모비우스 갤러리 莫比乌斯画廊



Mobius Gallery 莫比乌斯画廊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왕화핑 王华平

오색의 상징 _{五色之象}



五色之象, 雪松



Betweeen Mountain_pine



五色之象, 假山

리오저카이 Liao Zekai 廖泽楷

산과 산사이 廖泽楷-山峦之间



Betweeen Mountain_Stone ladder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홍창일 사진전

88서울올림픽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 체육사와 세계 스포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번 특별 사진전은 당시의 열기와 감동을 생생히 전달하며, 서울올림픽이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 린 국제적 이벤트였음을 다시금 조명한다.

이 사진전은 체육 발전의 기반을 다진 서울올림픽의 의미를 되새 기며 국민들에게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시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88서울올림픽의 성과를 돌아보며, 서울이 다시 세계 스포츠의 중심에 설 가능성을 제시한다. 과거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사진전이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향한 새로운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60 HANKOOKSAJIN December 2024 December 2024 HANKOOKSAJIN 61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홍창일 88 서울올림픽



ⓒ홍창일_88 서울올림픽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청소년사진제 수상작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는다. 전문 사진작가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멋진 사진을 찍고 공유하며 즐길 수 있는 2024년의 사진예술은 시민이 문화콘텐츠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확대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포토페스티벌 세부 프로 그램인 서울시 일상 사진 공모전과 청소년 사진제는 모두에게 익 숙한 스마트폰 사진을 공모한 대회이다. 주변의 평범한 친구와 지 인들이 촬영한 사진을 감상하는 시간을 통해 사진예술의 즐거움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 대상 | 이근숙 반포한강축제



| 우수상 | 김흥열_깨어나는 도시



| 최우수상 | 김진미_반포의 밤 | 우수상 | 고기영_불암산 철쭉공원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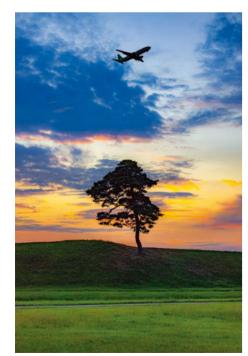
| 최우수상 | 차세연_푸른 하늘과 구름 사이로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 최우수상 | 김진솔_철공소 할부지



| 우수상 | 정민하_더 높은곳을 향해서



| 우수상 | 정준우_서울의 여운



| 우수상 | 이시윤_낙안읍성



| 우수상 | 오무영_발걸음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지자체전

사진의 고장 영월



영월군은 동강국제사진제 행사를 22번째 치른 명실상부한 사진의 고장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아카데미, 가족사진 촬영, 전국초등학교 사진일기 공모전 등 각종 사진행사가 연중 이루 어지고 있으며 영월군내 관광지는 모두 사진의 뷰포인트여서 많은 사진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국내 유일의 동강사진박물관과 사진 창작 연구소가 있어 전시 문화 가 뛰어나므로 국제사진제 및 각종 전시회가 연중 열리고 있어 사진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에서는 영월군의 후원으로 전국 사진가들을 대상으로 영월관광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사진의 완성도가 높은 출품작들이 선정되어 영월관광 홍보에 일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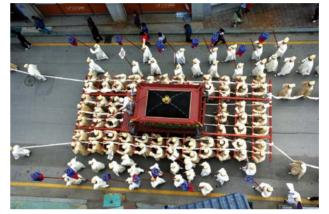
©김영수_겨울밤섶다리



ⓒ박화영_천문대 은하수



ⓒ정기철_승리를 향하여



©김도운_단종제 국장행렬



ⓒ윤원기_젊은달 와이파크 전경



ⓒ정상호_선돌의 겨울



ⓒ최익화_김삿갓 뱃놀이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조두리_한반도 설경



©김경이_초하의 청령포

ⓒ김진만_솔고개 소나무



2024년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육성 사업 제 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사진학과 교류전

사진의 시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진 전공자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사진예술의 성장과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젊은 재능에게 기회를 주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어 주어야 하기에 이번 교류전을 마련하였다.

홍익대 대학원, 중부대, 재능대 총 3개 학교 사진학과 교류전 전시 를 통해 젊은 예술인의 색다른 시각을 느끼고, 앞으로의 사진예술을 이끌어 나갈 사진예술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사진전공



ⓒ전도언



ⓒ서명안



ⓒ김윤교

재능대학교



ⓒ이유슬_Falls Wave



ⓒ이은서_도시 위의 온실



ⓒ 손유선-15개의 아이파크10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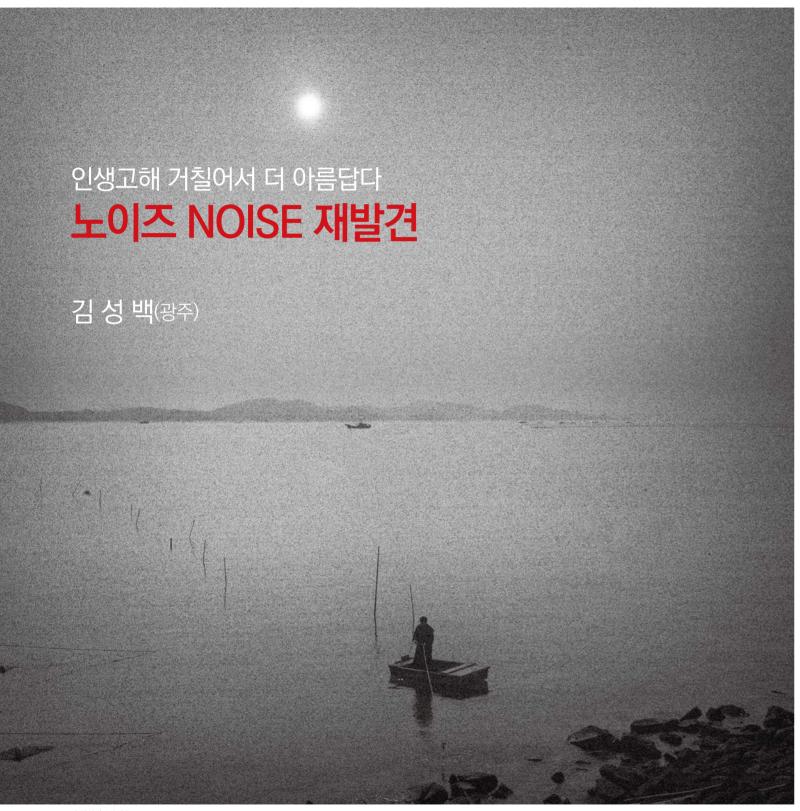


ⓒ강하늘-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석병준 1920년생



ⓒ조성연-Namib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전공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흠이 없는 매끈한 사진을 누구나 추구하지만 거친 겉감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에는 질리지 않는 감흥이 내재하고있다. 있는 그대로 본질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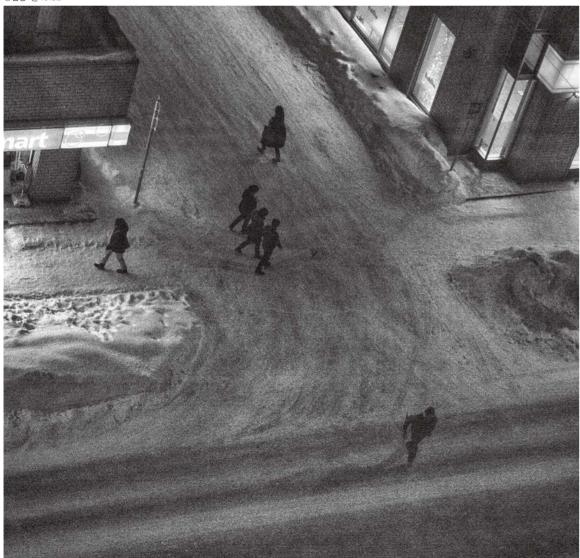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김성백_NO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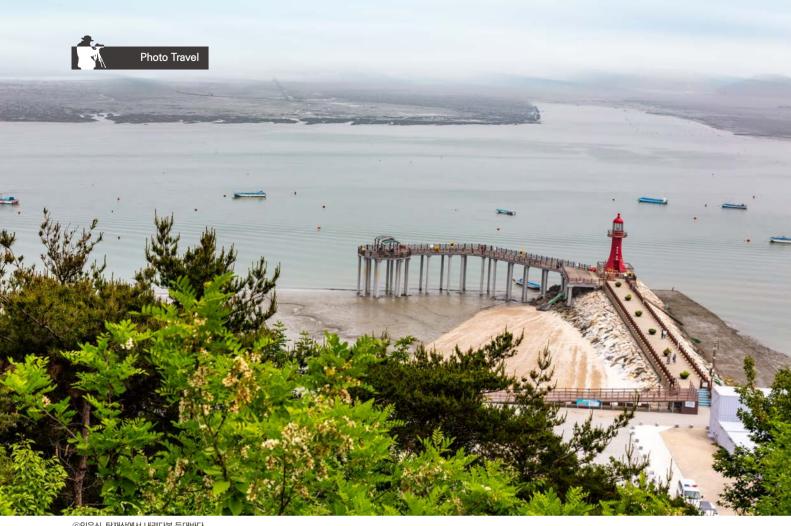
사진가에게 노이즈란 기피하고 제거하고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난 노이즈의 거친질감을 통한 표현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었다.

인생의 거칠고 투박한 삶속에서 순하고 연한 희망을 발견한 것처럼 사진가로써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노이즈를 통한 표현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었다.

사진은 세상과 내가 침묵으로 나눈 대화의 기록 내안에 숨어있던 말들이 살아나는 시간

다시 카메라들고 나갈 용기를 얻었다. 오랫동안 노이즈를 통한 표현에 빠져있을 것 같다.



ⓒ임윤식_탑재산에서 내려다본 등대바다

하루 두번 2.3km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제부도'

임 윤 식(송파구)



©임윤식_매바위 전경-가족나들이

- 매바위, 해안산책로, 아트파크, 해수욕장 등 유명

- '제비꼬리길' 트레킹 코스 2km, 섬둘레길 전체 4.3km
- 2021.12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개통



ⓒ임윤식_탑재산 오르는 계단



우리나라에서 간조 때 바닷길이 열리는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 는 곳은 진도, 무창포 석대도, 소야도, 실미도, 소매물도 등 꽤 많지만, 대부분은 물이 빠지면 모래톱이나 갯벌로 이어지는 곳들이며, 자동차를 직접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고흥 우도, 서산 웅도, 선재도 부속섬 측 도, 제부도 등 몇군데 밖에 되지않는다. 자동차를 타고 바닷 속으로 들 어가는 셈이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제부도는 간조시 하루 2번 무려 2.3km에 이르는 바닷길이 열린다.

밀물시각에 차도가 바닷물에 잠기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 서하진의 단 편소설 〈제부도〉가 생각난다. 소설가는 작품 마지막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물이 차 오르는 시간이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섰던 바다가 수 천 수만의 팔을 뻗어 엉겨 붙으며 만나는 시간이다. 섬은 섬으로, 뭍은 뭍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다. 이별하는 섬과 육지가 사납게 몰아치는 파 도 같은 눈물을 뿌리는 시간이다. 물가에 이르자 크릉, 밀려드는 물살을 겁내듯 차가 움칠거렸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돌아가는 거야. 나는 가 만가만 차를 다독이며 사라져 가는 길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그가 갔던 길을 가보리라. 그가 사라진 곳으로 나는 그를 따라가리라. 어둠 저편에 미소짓고 있는 그가 보였다. 그를 향해 마주 웃으며 나는 힘주어 가속페달을 밟았다. 그의 얼굴이 이끌어주고 있으므로 나는 길 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앞유리까지 밀려드는 파도를 와이퍼로 밀어내 며 나는 물소리와 차의 끼륵거리는 신음소리,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는 그의 아득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금 가요. 나직이 대답하는 내 앞을 막 아서는 바다. 춤추는 바다를 나는 그 파도를 닮은 손짓으로 밀어내며 어 둠 속으로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구봉도 및 대부도는 시화호 방조제로 육지와 이어져 있고, 선재도 및 영 흥도 역시 대부도와 선재대교, 영흥대교 등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비교 적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나, 제부도는 물때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기가 어려운 섬이다. 필자 일행이 찾아간 날은 물때로 보면 한달 중 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조금'이라 제부도의 경우 오전 10시 반 경부 터 이후 하루종일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다.

내비게이션에서 제부도 등대를 친 후 제부도에 들어섰다. 먼저 우측 방 향으로 돌아 제일 북단에 위치한 제부항에 차를 주차 후 등대 및 '제비 꼬리길'이라 부르는 해안산책로를 돌아봤다. '제비꼬리길'은 해안데크 산책로 0.8km, 탑재산 트레킹 1.2km, 총 2km, 약 1시간 정도의 가벼 운 산책코스이다. 제부도의 전체 해안선 길이는 4.3km, 해안선을 걸어 서 다 돌아도 2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카페에서



ⓒ임윤식_서해랑 케이블카



ⓒ임윤식_제부도 바닷길 전망대 Water Walk

커피라도 한 잔 마시다 보면 3시간 정도는 걸린다.

2017년 8월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된 제부도 제비꼬리길은 빨간등 대에서 해안데크와 탑재산 능선을 따라 걷는 길로 탑재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탑재산에 연접한 해안산책로는 2016년부터 진행해온 '제부도 문화예술섬 프로젝트'의 결과로 꽃게, 괭이갈매기, 바지락 등 바닷가 생물을 주제로 아기자기한 설치물들이 가득하여 가족, 친구 또는 연인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걷기와 사진 촬영을 하기에 좋은 길이다. 해안산책로는 제부항이나 해수욕장 양쪽에서 진입가능하며, 데크로드 폭은 약 150cm, 휠체어 등의 교행이 가능하다. 또, 일부구간은 지압자갈 구간도 있다. 데크로드 제부항 입구와 데크로드 내 조개벤치 근처에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어 간조시에는 해안 및 갯벌로 바로 내려갈 수도 있다. 데크로드 구간별로 서서의자, 둥지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해안경관을 감상하면서 잠시 쉴 수도 있다.

탑재산(해발 68.8m) 등산로는 전반적으로 완만하여 등산에 익숙하지않은 일 반여행객들도 별 부담없이 오를 수 있다. 등산 만 여유있게 30분 정도 걸리니 등산이랄 것도 없다. 동네 뒷동산을 오르는 수준이다. 제부항 앞 제부도 치안 센터 입구 또는 제부도 해변 끝 타이타닉 회센타 앞 계단으로 오른다. 등산로 에는 여러개의 조망대, 쉼터가 있어서 제부도의 경관을 즐기고 휴식하기에 좋 다

다음코스는 제부도 해수욕장. 해안데크산책로 끝단부터 '매바위해안'까지는 총 길이 1.8km에 이르는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으며, 민박, 카페, 식당 등이 밀집해 있다. 제부도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해수욕장 서북단에는 '아트 파크'라고 하는 예술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공간도 만난다. 제부도 아트파크는 2017년도에 세계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을 정도로 유명하다.



©임윤식_제부항 등대



해수욕장길을 계속 가면 '매바위' 해안에 이른다. 매바위로 가는 입구에는 넓은 광장이 있고 바로 해수욕장과 이어진다. 해수욕장에는 캠핑을 즐기는 텐트들이 가득하다. 간조 시간이라 갯벌 및 바위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다. 여기저기 갯벌체험을 즐기는 남녀노소 여행객들이 보인다. 바지락 캐기, 갯벌생태체험, 망둥어 낚시와 배 낚시, 그물체험이 연중가능하며 여름철에는 해양레저 체험도 가능하다. 수온이 적당하고 경사도가 완만하여 여름 한낮에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석양과 함께 하루를 정리하면 그 어떤 곳보다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

제부도의 명소 '매바위'는 삼형제 촛대바위라고도 부른다. 제부도 남서 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20m높이의 기암괴석이 매의 부리처럼 날 카롭게 솟아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제 제부도를 떠날 시간이다. 오늘은 오후 내내 바닷길이 계속 열려 있어 오고가는 차량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바닷길 옆에는 조형미가 특이한 교각들이 눈에 띈다. 2021.12.23.부터 개통된 케이블카 교각들이다. 케이블 카 개통으로 지금은 물 때 관계없이 언제라도 제부도에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부도는 간조시 차를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맛이 역시 아찔하고 낭만적이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10에 위치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은 전곡승강장과 제부승강장을 연결하는 구간이 2.12km로 바다 위를 지나는 거리로는 국내 최장이며 왕복 탑승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된다.

제부도 입구에서는 'Water Walk'라고 이름붙여진 조형물도 만난다.

Water Walk'는 제부도 바다열림길 입구(구 제부도 매표소 자리)에 자리잡은 다목적 조망시설이다. 제부도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 드넓은 갯벌 위에서 펼쳐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제부도는 2017년 경기유망관광 10선에 선정되었고,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에 한 번 선정하는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연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경기도 서부해안 대표 관광지이다.(글,사진/임윤식)

제부도 가는 방법

제부도는 시화방조제를 거쳐 대부도에 들어온 후 하루 두번 물때에 맞춰 바다 갈라지는 간조시간에만 진출입이 가능한 섬이다. 도보 및 자동차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다. 도보의 경우에는 바닷길 약 2.3km, 편도 40분 정도 걸린다. '바다갈라지는 시간'은 '바다타임'이라는 앱이나 화성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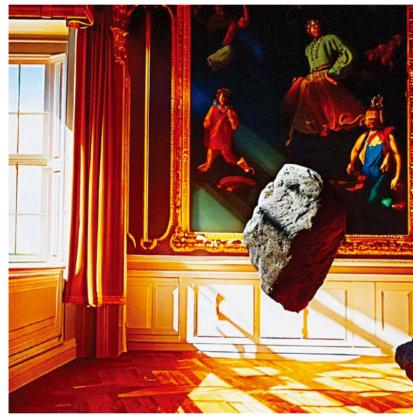
2021.12.23.부터는 케이블카가 개통되어 물 때 관계없이 언제라도 제부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로 1-10에 위치한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은 전곡승강장과 제부승강장을 연결하는 구간이 2.12km로 바다 위를 지나는 거리로는 국내 최장이며 왕복 탑승 시간은 약 10분이 소요된다.



안준, 정현목 2인전

New Pictures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안준, 〈Untitled#67〉, from the series of 《신과 당신을 위한 방 1_ A Room for You and God 1》,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Bing Image Creator), photographed computer screen, HDR Ultrachrome archival pigment print, 2023

독일출신 사진작가 보리스 엘다크센은 2023년 '기억환각 : 전기기술 자'라는 작품으로 소니 월드 포토그래피 어워드의 크리에이티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본인은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의 이미지이며, 이런 이미지가 사진계에 끼칠 영향을 실험하고, 사진의 미래에 관한 토론의 장을 위해 출품한 것이라고 수상을 거부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전 예술계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용된 작품들에의해 많은 논란들이 생겼고 생성형 AI의 '창작'활동에 대해 위기라고

도 또는 기회라고도 하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J'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대 사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해 가고 있는 사진가 안준과 정현목의 2인전 (New Pictures)를 기획하였다. 11월 12일 오픈해서 12월 26일까지 이어지는 전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업을 이어온두 작가의 전시를 통해 AI로 인한 사진예술의 변화와 AI가 창작활동에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정현목〈Gnenrated Vanitas - Roelandt Savery #01〉,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pigment print, 2024

고속사진 기법을 통해 인간의 인지 속도를 초월한 순간을 포착하여 현실의 문맥이 사라진 이미지의 초현실적 아름다움을 표현해 온 안 준은 최근 텍스트-투-이미지(text-to-image) 방식의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어떻게 시각화 하는지 탐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23년 개인전 〈Good Morning, John〉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플렛폼의 차단어를 교묘히 이용하여 AI가 어떤 원칙으로 학습되도록 만들어졌는지, 또한 지시 받은 일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안준은 '19세기에 발명된 사진이과거의 회화가 지녔던 사실적인 재현의 기능을 대체했듯, 인공지능기반의 이미지 생성기는 인간의 발상이 시각화되는 과정의 일부를 대체하여 하나의 매체로서 기존의 매체와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그는 '인공지능이 일반화될 근미래에 이미지 플랫폼 차단어와 이미지 생성 플랫폼들의 사전 검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동시대



정현목 (Gnenrated Vanitas - Jacques de Gheyn II #01),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pigment print, 2024





안준, 〈Untitled#03〉, from the series of 《신과 당신을 위한 방 2_A Room for You and God 2》,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Bing Image Creator), photographed computer screen, HDR Ultrachrome archival pigment print, 2023



안준, (Untitled#03), from the series of 《신과 당신을 위한 방 2_A Room for You and God 2》,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Bing Image Creator), photographed computer screen, HDR Ultrachrome archival pigment print, 2023

의 시각적 터부를 규정하고 의식의 경계를 그리게 될 것'이 라고 시사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매 체 실험을 지속해 오고 있다.

반면, 앞선 2023년 〈Autonomy Hierarchy〉를 통해 만들 어진 생성 이미지(Generated Image) 중 사진적 이미지 (Photographic Image)가 예술에서 갖게 될 위치와 의미 를 탐색했던 정현목은 (Generated Vanitas)에서는 이를 보다 더 확장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의 자율 성과 작가의 창의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구해 나간다. 그 는 디스크라이브 기능으로 추출한 프롬프트를 보다 적극적 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가의 창 작적 개입에 따라 얼마나 더 정교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기존의 사진과 달리 생성 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사진적 이미지는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하는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왜곡에 의한 비현실성이 오히려 새로운 예술 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보고 있다. 이전부터 동시대 소비문화를 다루기 위해서 바니타스 알레고리를 지속적으로 작품에 사용해 왔던 정현 목은 이번 '(Generated Vanitas)는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과거의 예술적 유산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 로 재해석 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예 술이 미래의 사회적 기술적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 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적고 있다.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예술 매체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동시대의 예술가들은 이를 수용하며, -혹은 부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예술의 영역에서 또다른 표현 방식을 치열하게 모색해 왔다. 기존의 디지털 이미지가 지녔던 '무한 복제 가능성'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디지털 이미지의 '무한 생성 가능성'으로 전환되는현시점에서 '시 시대에 작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당신(관객)은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안준•정현목 2인전_New Pictures〉가 동시대의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심하며 만들어낸 시 시대의 사진적 이미지에 대한새로운 시도를통해 관객들 개개인이 언제든 도래할 수 있는,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이미지의 시대에 대한 성찰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 아트스페이스 J



정현목 (Gnenrated Vanitas - Jacques de Gheyn II #01),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pigment print, 2024



정현목 (Gnenrated Vanitas – Willem Claesz. Heda #01), 기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pigment print, 2024





안준, (Untitled#57), from the series of 《굿모닝, 존 _Morning, John》, 가변사이즈, Al Generated Image (Bing Image Creator), photographed computer screen, HDR Ultrachrome archival pigment print, 2023

사진은 청사진법이나 레이요그래프와 같은 독특한 사진 작업 방식에서 부터 최첨단 디지털 사진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적인 방식을 추 구해왔다. 미래에는 사진 이미지의 결과물이 또 어떠한 새로운 방식으 로 만들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사회는 사진이란 것은 카메 라를 통해서 찍은 현실의 순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오히 려 예술계에서는 광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사진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포토샵과 같은 디지털 보정프로 그램을 거쳐 작업을 하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했는가 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는가가 중요하 지 않을까. 사진의 예술성은 똑같이 찍고 보정했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 기 때문이다. 사진에서 디지털이 사용되고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 중 요한 장르가 되면서 생각없이 찍은 사진을 현란한 보정으로 덮어놓고 작품이라 우기는 사람들이 생긴다. 보정프로그램에서 조절을 오버해서

생긴 현상을 새로운 발견이라 오해하거나 비정형적인 모양들에 비현실 적인 색을 입혀 추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현실에 안주하 는 것을 추천하지 않으나 새로운 것에 빠져버리는 것도 위험하다. 사진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오랜 시간을 통해 깊이 있게 확립한 서정과 서 사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정서가 관람자와도 전달되어 소통되는 것이 다. 혹여라도 작품이 아니라 이미지 보정과 생성의 수단에 빠져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성찰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넓게 받아들이되 깊게 생각해야 한다. 현대의 사진예술 현장에 동참해 나가는 사진가로서 디지털 보정을 사용하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 게 되건 그것들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용한 작품' 을 창조해 내는 현명한 작가가 되기를 바라며 2024년의 마지막 달에 안부의 인사를 전한다.





UNITED TO LANGE

(주)신지스튜디오클럽

사진가를 위한 폐쇄형 인증제 쇼핑몰

포토프린터

EPSON Canon

미니, 배터리 휴대용, A4무한정품, A4포토복합기 A3 전문가용 포토프린터, A2 ~ 64인치 대형

포토페이퍼, 정품잉크

EPSON Canon SINJI EXCEED YOUR VISION

대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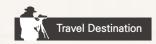
축제, 행사, 무상대여 / 02)790-1310







전국 예술학부 1,000여학과 납품



'미제 좋아' 탄생한 듣보잡 국명

월남은 어쩌다 베트남이 되었나

글·사진제공_최승언



조선어 한호



신간회 일제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했다.

한국 사람은 중국의 수도를 북경이라고 하고 홍콩 사람들은 빡깅, 현지인들은 베이징이라고 한다. 같은 지명 北京을 발음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승리를 경상도에서는 성리에 가깝게 발음하는 것과 비슷하다. 의리를 전라도에서는 으리라고 발음하는 것도 한 지역의 발음이 다른 지역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이 재팬이 되고 월남이 베트남이 된 것도 외국 인들이 현지 발음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발음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日本이라는 국명을 일본 사람은 니폰이라고 발음 하고 중국인들은 '즤뻔'이라고, 한국인들은 '일본'이라 고 발음한다. 동양 3개국의 발음도 이렇게 차이가 나 는데 서양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발음이었을까?

서양인들은 중국 발음 '즤뻔' 을 자폰이라 했고 이 것이 자판, 재팬으로 변화되었다.

서양인들이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하고 소리 냈지만 결국 일본과 재팬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말 았다.

우리가 우유 (Milk)를 밀크라고 발음하면 미국 사람은 못 알아 듣는다. 오히려 미옥 또는 미역하고 발음하면 백프로 알아듣는다. 고려가 코리아로 된 것도이렇게 외국인들과 현지인의 발음과 표기법의 차이

로 설명할 수 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한국인들은 '越南'이라고 쓰고 월남이라고 발음하지만 중국인은 '유에난'으로 읽는다. 그리고 월남 현지 사람들의 발음은 '벤남'에 가깝다. 이것을 미국인들이 비엣남 (vietnam)으로 발음했다. 한국인들은 월남전 당시 이 미국인들이 표기한 알파벳대로 읽게 되면서 베트남이라는 듣보 잡 국명이 탄생했다. 60년대만 해도 월남이었는데 70년대 월남파병 이후 베트남이라는 우리만의 국명 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빙돌아서 월남이 베트남이 되 고 말았다.

이는 고급문화가 저급문화 흐르는 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월남을 미국인들이 비엣남이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미국인들을 따라했기 때문에 월남이 베트남이 되었다.

당시는 한국인들이 미국문화를 흠모해 미국제라 면 뭐든지 좋아 보였던 때였기 때문이다. '월남'이라 하면 촌스러워보였고 '베트남'이라고 하면 세련되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있는 나라의 문화가 약한 나라를 언어로 지배하는 현상이다.

미국문화의 영향력이 높을 때 우리는 사활을 걸 다시피 영어를 배웠다. 지금도 영어를 중시하는 것 은 미국문화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일본 강점기에 일본문화를 고급문화로 받아들였던 조선인들이 술잔을 '고뿌'라고 불렀다. 고뿌는 영어의 '컵'을 일본인들이 발음이 안되어 그렇게 부른 것인데 식민시대 한국인들은 일본 문화를 세련된 것으로 여겨 받아들인 결과 '고뿌'가 나온 것이다.

이는 광복 후 미국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야 '고 뿌'는 '컵'으로 제자리를 잡는다.

어디 고뿌뿐일까 쟁반을 오봉, 손톱깎기를 스메







<u> </u> 소련의 폴란드 침공







참전한 한국군

선안 안국군



폴란드 침공한 소련과 독일군

일제 강점기 수업

황국신민서사

끼리, 도시락을 벤또라고 하는 등 광복 후에도 한동안 일본 어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학교에서 조선어 쓰는 것을 금지했다. 이른바 일제는 조선어 표찰돌리기라는 악랄한 수법을 썼다. 조선어를 쓰는 학생에게 표찰을 주고 목에 걸게 하여 창피를 주는 방식이었다.

표찰을 받은 학생이 조선어를 쓰는 다른 학생을 발견해 표찰을 넘겨주게 했는데 표찰을 10개 받으면 1전을 벌금으 로 물리거나 한국어 사용할 때마다 체벌이 가해지기도 했 다.

일제는 왜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 했을까? 한국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가장 효과방법이 언어를 빼앗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2차대전 이후 동유럽으로 식민지를 확장하던 소련도 폴란드 등 동유럽 학교에서 점령지 국어 수업을 금지했었던 것을 보면 그 나라 정신이 담겨 있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침략의 수순 중에 하나였던 셈이다

그러나 지금 폴란드어는 소련의 침략을 견뎌내고 엄연히 살아 남았다.

물리적 힘으로 언어를 빼앗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직 문화로 앞서가면 강제로 자국의 언어를 주입하지않아도 스며들어 간다.

한류가 한국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확산하게 한 일등 공 신이 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일 것이다. 한류가 커질수록 한 국어를 해외에서 앞다투어 받아들이는 현상을 볼 때 문화로 승부해야 그 나라 말과 함께 국가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월남에 참전한 한국군

예를 들면 한국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우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를 받아들이는 국가 들도 늘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동해에 독도를 표기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된다. 같은 맥락으로 조상들이 살던 옛 땅의 지명도 우리 발음으로 부를 때 고토 회복이 가능하다.

길림을 지린이라고 흑룡강을 헤이룽장이라고 요녕을 랴오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토 회복을 포기하는 것 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옌벤이 아니라 연변으로 써야 언젠가 그 땅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지명을 현지 발음에 따른다는 외래어 표기 원칙을 중국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왜 우리는 고구려, 빌해, 고려의 영토였던 지역의 이름을 우리의 소리로 발음하지 않는가? 따련이 아니라 대련으로 옌타이가 아니라 연대로 가야한다. 백두산을 장빠이산이라고 안쓰는 것처럼 감숙성도 깐쑤로 쓸 일이 아니다.

터키는 트루키에로 국가명을 바로잡았다. 우리 한국인 들도 이제 주체적인 언어로 세계를 이끌 때가 되었다.





한류따라 세계로 뻗어가는 한글

2024년 제5차 이사회 결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 소: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총원 86명, 출석 65명, 위임 15명

출석: 유수찬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백만종,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권영익,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양호, 김옥진,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춘도, 김화연, 도성만, 박석관, 박승호, 박인호, 백승의, 서효석, 설병갑,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오명숙, 오상관, 우기곤, 우숙자, 윤민식, 윤보상, 윤판문,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종석,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정연수, 정종관, 정홍선, 최복수, 최성용, 최연근, 최영태, 최임순, 하봉걸, 한재원, 황길연, 황의출 이사

위임: 곽준석, 김동철, 김영록, 문금영, 민웅기, 박건태, 박경서, 박만석, 이문균, 이창훈, 전태만, 조월신, 정재문, 한용상, 한희동 이사

참 석: 이경래, 이덕만, 공병철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6명 중 출석 65명, 위임 15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강돈영, 이막래 이사 / 경과보고 : 김형준 사무처장

[경과보고]

2024. 10. 18. ~ 21. 베이징사진주간 방문

2024. 10. 21. ~ 23. 한국예총 대표자회의, 예술축전

2024. 11. 13. ~ 17. 한국청소년사진제, 서울시 일상사진공모전 심사

2024. 11. 18. 2024 장학생 선발 심의

4. 안 건

- 1) 운영자문위원단 및 지회·지부장단 회의 결과 보고
- 사무처장이 11월 8일 ~ 9일 개최된 운영자문위원단 및 전국 지회· 지부장단 회의결과 및 건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 2)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법조인 등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이사장에 게 위임

3) 2024 장학생 선발결과 보고

- 11월 18일 개최된 2024 장학생 심의 결과 24명의 장학생 선발결과를 보고

A형 사진학과 전공 - 18명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나은	경성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안혜수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김태연	경성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장이슬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이새벽	경성대학교 사진영상학부	남현성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장보경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이유슬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조소정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이은서	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배유진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학과	박성현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이채연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학과	이현호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배상혁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김윤교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전공		
판영석	광주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서명안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전공		

B형 회원 자녀 - 4명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기체이	백성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박규관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김혜원	금산지부 김종철 회원 자녀		대구지회 정화조 회원 자녀		
UTHY	동국대학교 간호학과	기시청	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이재성	인천지회 이정희 회원 자녀	김서현	4기 아카데미 김태현 자녀		

C형 회원 본인 - 2명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헌민	4기 사진예술아카데미 작가과정	한명순	4기 사진예술아카데미 작가과정	

4) 장기회비 미납자 정권 및 제명의 건

- 장기회비 미납 제명 대상자는 처리는 승인하고, 정권 대상자의 경우 추가 안내 및 향후 조치에 대하여 이사장단에 위임

5) 제63회 한국사진문화상 개최의 건

- 개최를 승인하고 심의위원 구성은 이사장에게 위임

6) 제62회 전국회원작품지상전 개최의 건

- 개최를 승인하고 이사회 추천 심사위원의 선정은 이사장에게 위임

7) 규정 개정의 건 - 승 인

■ 지부 운영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①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①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총 회원수가 30인 이하의 지부는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임 할	다. 단, 총 회원수가 70인 이하의 지부는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수 있다.(2020.07.30. 개정)	(2024.11.21. 개정)			
② 승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좌동			
③ 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③좌동			
개정사유 : 지회·지부장단 요청에 따른 수정				

■ 초대작가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전	개정 후	
초대작가위원회 운영세칙	초대·추천작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임원)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제4조(임원) 좌 동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 (2021.09.30 개정)		
① 위원장 1인	①좌동	
② 부위원장 5인 (2021.01.29 개정)	② 부위원장 6인 (1인은 추천작가 중 선임한다)	
③ 사무국장 1인	③ 사무국장 1인, 재무국장 1인	
④ 운영위원 20인 이내	④ 운영위원 30인 이내 (10인은 추천작가 중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 2인	⑤ 좌 동	
제6조(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제6조(임원의 선출) 위원회의 임원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추천작	
한다. (2021.09.30 개정)	가로 한다. (2024.11.21. 개정)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①좌동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좌동	
③ 사무국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좌동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좌 동	
제7-1조(위원의 자격취득) (2021.09.30 신설)	제7-1조(위원의 자격취득) (2021.09.30 신설)	
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초대, 추천작가 중에서 위원회 규정을 충족	① 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 추천작가로 한다.	
하는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항 및 명부를	②좌동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 본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실시한다.

개정사유: 초대작가위원회 요청에 따른 개정

8) 윤리조정 위원회 사건 보고의 건

- ① 남원지부 관련 진정
- 피진정인 이수민, 김병윤, 강동근, 권희동, 이윤모, 강기창, 박종배
- : 징계규정 제10조에 의거 추후 공지
- 피진정인 김용권
- : 협회 승인없이 공식업무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서 경고하기로 함

9) 사업 승인의 건 - 승 인

① 2024년 여주오곡나루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최고상권 변경

변경전	변경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여주시장상

10)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추천작가 인준의 건 – 승 인

① 초대작가 인준의 건

번호	성명	추천작가 인준일	초대작품 5회 출품여부	지 역
1	한식	2019.10.24.	0	전주

② 추천작가 인준의 건

번호	성명	취득내역	상장점수	지역	비고
1	박성혁	입선 9회, 지상전 우수작품상 대구광역시사진대전 초대작가	13점	대구	

11)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 인

〈임 원〉

태백지부: 재무간사 - 이경직 **양양지부**: 사무국장 - 서명숙 **포항지부 :** 부지부장 - 박종환

(입 회) - 70명

서 울:여상현(정)

강북구:이철수(정)

강서구: 박종길(정)

광진구: 장경진(정)

마 포 구 : 윤기관(정)

송 파구: 강봉주(정), 권은경(정), 김태영(정), 서상철(정), 서승남(정), 송 욱(정), 윤여창(정), 이을기(정), 이혜성(정), 임소영(정), 최명숙(정), 홍대식(정)

중 구:김진석(정)

광 주: 김동화(정)

대 구: 권종국(정), 정황영(정)

부 산:설미화(정), 이범수(정), 임윤규(정)

세 종: 이승섭(정), 임윤수(정), 윤주영(정)

울 산:김말순(정)

제 주: 박정미(준)

동 해:김의숙(정)

원 주: 박계숙(정), 전인철(정)

춘 천: 강희철(준), 박환남(정)

경기광주 : 김장수(정)

구 리: 김정빈(정), 박명숙(정), 윤재명(정), 진재갑(정), 최완재(정),

한상현(정)

성 남:신윤식(정)

수 원:이호근(정)

용 인: 김수환(정)

구 미: 윤진해(정)

영 주: 권종옥(정), 김재숙(정), 김은숙(정), 서경섭(준), 송영숙(정), 이정한(준), 임찬경(정), 조정애(정), 허양심(정)

포 항: 방월묵(준)

양 산:이미자(정)

부 안:김창곤(정)

익 산: 강대식(준), 이국형(정), 최춘림(정)

광 양:신종욱(정)

여 수: 최재영(준)

청 주: 김광주(준), 김현만(정), 김형배(정), 송종란(정), 이봉영(정),

조성순(정)

공 주:이옥순(정)

홍 성:김상구(정)

〈승 격〉 - 8명

경기광주: 박종연

안 산:강금순,김정숙

창 원:성환태

여 수:임익재

청 주: 윤연근, 채희봉

태 안:김동창

〈복 권〉 - 5명

서 울: 권경석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대 전: 윤영미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고 령: 서경숙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포 항: 최창호 - 회비미납정권 / 완납복권

천 안: 남상열 - 자퇴 / 완납복권

12)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승 인

번호	강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좌명	시수
1	김동욱	제2023-지도3기09호	국립순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순천	디지털카메라 & 포토샵	15회/45시간
2	임흥식	제2023-지도3기44호	송파문회원	서울	사진작가를 위한 포토샵과정(고급반)	24주/48시간

13) 기타의 건

①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개최 참석 독려

-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 8일(일)

- 장소: aT센터 제1전시장

② 사진예술 아카데미 제4기 사진작가반 기획전시 (졸업전)

- 일 시 : 2024년 12월 11일(수) ~ 16일(월)

- 장소: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3층

◎ 회비납부 안내 사항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시지회 및 지부 회비납부(회원님께서 소속한 지회, 지부에 납부) 지회 · 지부 전용 계좌 : 농협은행 301-0156-2082-01
- 서울 구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본 협회소속 서울회원
- : 연회비 10만원 본회에 납부 (국민은행 031-25-0001-564)
- 문의 및 회비담당: 재무팀장 조윤숙(02-2655-3135)
- 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 : 월간 한국사진 발송 중단(회원님들의 회비 등으로 제작)
- : 광역시지회, 지부 운영규정에 의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 : 회원 입회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2년 이상의 회비 미납시 정권
- 정권 후 1년 이내에 회비 미납시 제적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액자

웹하드주소 www.webhard.co.kr 웹하드 ID: dongil6444 / PW: 6444 dongil6444@hanmail.net · 하드락액자(광학필름) · 디아섹액자(아크릴) · 메탈액자(알루미늄판) · 사진출력 및 기본수정

> "작품에 기술을 <mark>더한 액자와 사진출력"</mark> 대한민국사진대전, 각종 전시회 제작

· 대표문의 010-6462-6266 · 다음 검색하에 전주동일액자 를 검색하세요

2024 운영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유수찬 이사장 "협회 발전기반 마련할 것"



회의를 마치고 운영자문위원회 단체기념촬영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11월 8일과 9일, 충남 이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운영자문위원단 회의와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를 열어 협회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협회의운영 방향과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로, 협회의 주요 인사와 전국지회·지부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운영자문위원단 회의 :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운영자문위원단 회의는 김형준 사무 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이향룡 부이사장,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협회의 미래를 위한 주 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중국 북경예술사진학회와 체결한 MOU를 언급하며, 중국 청년작가들과의 교류와 협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그는 "협회의 점진적 변혁과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학기금의 법인화를 통해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현하 운영자문위원장의 진행 아래 자문위원 제도 개선, 회비 면제 규정 유지, 회원 구성 변경, Al 사진

및 영상 인정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운영자문위원회가 장학기금 기탁에 솔선수범 하기로 결의하며 협회의 책임감을 보여주었 다. 회의는 기념사진 촬영과 저녁 만찬으로 마무리되었다.



개회사를 하는 유수찬 이사장



December 2024 HANKOOKSAJIN 97

운영위원회 회의모습

96 HANKOOKSAJIN December 2024

협회 소식 SOCIETY NEWS

전국지회·지부장단 회의 개최

전국지부 지회장 참석, 협회 미래 토의





전국지회·지부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

회의모습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 회원 중심의 운영 강화

다음날인 9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는 김형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전국 지회·지부장 250여 명이 참석해 협회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유수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임시총회에서 정기총회를 대의원제로 변경한 안건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보완해 2025년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정관 개정과 운영 개선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이 논의되었다. 협회의 회비 면제 규정과 회비 미납 회원 관리 방안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회원 구성을 조정해 정회원과 준회원을 작가회원으로 통합하고, 청소년 및 단체 회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또한, AI 기술로 생성된 이미지를 창작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공모전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지회·지부장 임기에 대한 논의에서는 회원 수가 적은 지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연임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이어졌으며, 협회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가되었다.

이번 2024 운영자문위원단 및 전국 지회·지부장단 회의는 협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하고, 회원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사진예술계를 선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수찬 이사장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수상

50개 언론사 심사, 최종 12명 선정





수상 소감을 하는 유수찬 이사장님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한 유이사장 첫번째

사단법인 한국바른언론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 시상식이 11월 29일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상은 해마다 정치와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나눔 봉사,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해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1차로 올해 언론에 보도된 화제의 인물로 80여명 등이후보에 올랐고, 부문별 기여도에 대한 공적 자료를 토대로 전국 50여 개의 언론사 회원 대표로 선출된심사 위원들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심사 결과 사진예술 부문에서 유수찬 이사장, 정치 부문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글로벌 경제 부문에서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회장, 고령화복지 부문에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등 총 12명이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유수찬 이사장은 대한민국사진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및 중국예술학회와의 국제교류 등의 공헌을 인정받아 사진예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 이사장은 "큰 상을 받게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사진예술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발전기금적립 내역

(2024년 11월말 현재)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76,698,685

계: 1,186,588,371(a)

○입회자 발전기금 계: 309,100,000 (3,091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36.600.000

② 2018년 계: 53,200,000

③ 2019년 계: 100,900,000

⑤2020년 계: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2021년 계: 27.700.000 ⑦2022년 계: 32,200,000 ⑧2023년계: 16,900,000 ⑨2024년 계: 25,9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 2024년03월(36명): 3,600,000 ▷ 2024년05월(14명): 1,400,000

▷ 2024년07월(50명): 5,000,000 ▷ 2024년09월(39명): 3,900,000 ▷ 2024년11월(70명): 7,000,000

○기타계: 79,486,905

▷ 이자(보통예금):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24.834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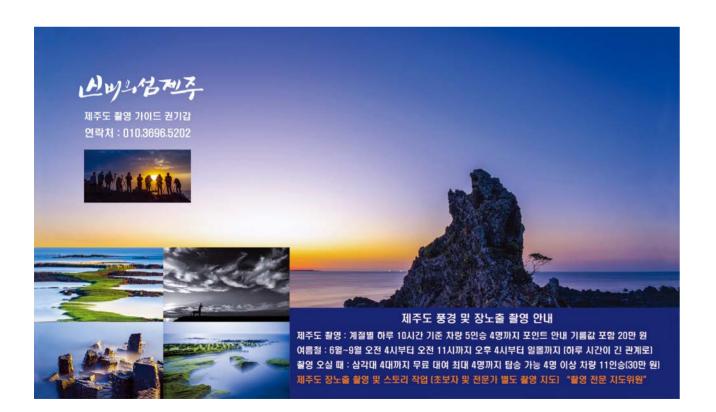
25,873,851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786,588,371 (a-b)



대한민국 사진전문잡지 최대발행 부수 - 매월1만부

1만명에게 보내는 초대장!!



2023. 현재 우편엽서 125×175mm 기준 1통 발송비 400원

■ 게재 방법 안내

- · 전시일정 사항, 작가노트, 전시작품 원본 15컷 이내 전월 20일 이내 전달요망 (전시 한 달 또는 두 달 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 입금계좌 국민은행(031-25-0001-564) 예금주(사)한국사진작가협회
- · 전달 이메일 sss0244@naver.com · 게재 된 월간 한국사진 20부 배부
- · 게재 문의 02-2655-3131 (또는 편집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11월 입회자)

















































박명숙(구리,정)

이호근(수원,정)



윤재명(구리,정)



이국형(익산,정)

진재갑(구리,정)



권종옥(영주,정)





한상현(구리,정)

김재숙(영주,정)



신윤식(성남.정)

















김상구(홍성,정)



강대식(익산,준)







최춘림(익산,정)

















바다 이야기

미래사우회 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29일(일) ~ 2025년 1월 4일(토) 전시장소 갤러리 아르(대구 중구 동덕로 14길 58-10. 커피명가 카페 2F)

전시오프닝 2024년 12월 30일(월) 오후6시 참여작가 고문 한병률, 회장 박두천, 총무 이경화 회원 강주석, 김양섭, 이흥기, 이광진, 이응민, 이도형

2014년 창립한 대구 미래사우회 - 바다 이야기 사진전이 2024년 12월 29일 대구 갤러리 아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총 9인의 사진작가 들이 참여하며, 지난 2022년 제7회 대한민국사진축전 단체전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전시회이다.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그동안 작업되었던 작품 들 중 선별하여 9명의 개성 있는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감상할 수 있 을 것이다. 미래사우회는 지역 사진예술 발전과 시민들에게 사진예술의 다 양함과 수준 높은 작품 관람 기회가 될 것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 예지향 초대전 - The Beautiful Earth(아름다운 지구)

진주목걸이가 드리워진 아름다운 풍경 - 銘仙 李鎬淵(이호연) 초대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2~3시간 동안 인터벌로 해 망울을 촬영 하여 스텍으로 불러와 한 장의 해 망울 궤적을 만들고, 여기에 풍경을 병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창작 된 작품을 '진주목걸이'라고 본 작가는 명명했습니다.

본 작가는 '진주목걸이'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작 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주목걸이' 작업을 하는 풍경이 나와 관련이 있을 것 둘째로 '진주목걸이' 작업을 하는 풍경에 스토리가 있을 것 긴 시간 작업을 하면서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것은 작업하는 풍경이 나와 관련이 있다면 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반추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5일(토)

전시장소 Gallery 예·지·향 (경기도 의왕시 찬우물 1길 15)

개 전식 2025년 1월 20일(월) 17:00

전시작가 銘仙 季鎬淵(이호연)

(hoyeon87326486@gmail.com)

해운대 展 - 하병철 초대전

구박갤러리 포트폴리오 초대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 12월 21일(토) 전시장소 구박갤러리(관람시간 오전11시~오후7시) (부산시 중구 보수대로 110 / 010-6608-6899) 작가와의 대화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3시 전시작가 하병철 (010-6280-5236)

전시기획 부산문화예술연구소

빛과 그림자의 시(詩), 해운대에 드리운 시간 시간이 파도를 타고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바다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비추고 고요한 수면 아래에 수많은 감정과 기억을 숨긴 채 모든 것을 포용한다.(중략)

나는 그 순간들을 묵직한 질감의 모노톤으로 그려내고 싶다.

흑백의 대비 속에서 해운대의 흐르는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듯한 작업을 통해.

해운대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다.

내게 있어 사진을 찍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일종의 기도와도 같다.

〈작가노트 중에서〉



Light & Moment #3 흰밤을 지새다

아뜰리에21 개관기념 사진전 - 김민주 사진전



전시일자 2024년 12월 17일(화) ~ 2025년 2월 28일(금)

관람시간 AM 10:30 ~ PM 06:30

전시장소 아뜰리에21(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21, 해마루밸리2층)

전시작가 김민주(010-3337-0764)

하늘은 무수한 별빛으로 수놓아져 밤의 장막을 더욱 신비롭게 드리운다.

그 사이로 오로라가 나타나

춤을 추듯 빛을 발하며, 세상을 감싸앉는다.

내가 바라본 별빛은 우연이면서도 필연적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나라는 존재가 거대한 무한 속에서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깨달음이 들 때,

그 강렬한 실존의 찔림이 바로 롤랑 바르트의 밝은 방에 나오는 푼크툼

(Punctum)적 요소로 다가왔다. 〈작가노트 중에서〉

바다

대구여루사진가회 창립20주년 기념사진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 12월 29일(일)

전시장소 대구문화예술회관 5전시실

참져작가 고선희, 공진미, 권인순, 김미경, 김상희, 김행란, 노영이, 문순덕, 박난옥,

박문연, 박영숙, 박영순, 박영자, 박영조, 배영희, 서지안, 송순남, 오명숙, 이경화, 이인자, 이지선, 이혁숙, 이혜숙, 임영미, 정나겸, 정일경, 정하윤,

조복순, 조순희, 진갑생, 차현자, 최미경, 한경자, 황보경숙

전시기획 김상희

많은 것을 품고 내어주는 안식처 같은 곳이다.

누군가에게는 푸른빛 누군가에게는 회색빛 그 누군가에게는 붉은빛

여류사진가 34인 각자가 마주한 바다를 저마다의 색으로 담아 다채로운 색에 물든 바다가 되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빛을 그리다

이상숙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2월 26일(목) ~ 12월 30일(월)

전시장소 울산 남구 문화원 Gallery 숲 (관람시간 오전10시 ~ 오후6시)

전시작가 이상숙 (010-9540-5771)

빛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가장 매혹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조용히 녹아들어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 전시에서는 빛을 주제로 다양한 장면들을 담았습니다.

각각의 사진은 빛이 어떻게 공간과 형태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우리의 감각과 감정을 자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빛은 때로는 부드럽고 온화하게, 때로는 강렬하고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림자와 명암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안성 철도의 역사를 찾아서

대구여루사진가회 창립20주년 기념사진전 - 엄태수 개인전



전시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 11월 17일(알)

전시장소 안성역스테이션 100 전시작가 엄태수(010-2257-7172)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안성에도 철도가 있었다. 경기선(京畿線) 또는 안성선(安城線)으로 불렸던 안성의 철도는 현재 달리지 않는 다.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인 안성장은 삼남지방으로 연결되 는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과 물자가 집중되는 가히 상업의 도시였 다. 그러나 한국을 침탈한 일제는 군사물자 조달과 식민지 수탈을 위해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였고, 안성이 제외된 평택으로 철도가 개통되면서 기존의 유통구조가 재편되어 안성지역의 경제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갔다. 〈중략〉

현재 안성천 및 청미천 교각과 일부 소규모의 교량이 남아있고, 통학으로 이용한 학생들과 옛 안성선을 배경으로 촬영했던 안성인들의 사진과 추억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안성역 스테이션 100'에서 곧 다가올 미래 안성 철도를 상상해 본다. 〈작가노트 중에서〉

Gallery 투고 안내

Gallery에 게재된 사진전시회는 사진전문 잡지인 월간 한국사진에서 본 협회 회원들 뿐 아니라 사진애호가들에게 다양한 사진전시를 소개하여 직접 관람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게재되는 사진전시회는 본 협회 회원이라면 무료로 진행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Gallery 사진전시회 올리는 방법

- 1. 대표작 1~2점, 간략한 작가노트 A4 1/3분량.
- 2. 전시제목, 전시장소, 전시날짜, 전시작가 순으로 작가노트에 삽입하여 제출요망.
- 3. 데이터 올리는 곳
- : 웹하드 접속 후 아이디 kpask / 패스워드 kpask 무료 갤러리 투고 폴더에 투고자명 폴더 생성 후 업로딩
- : 본 협회 이메일 koreapask@daum.net 로 무료 갤러리 투고자명으로 데이터 업로딩
- 4. 업로딩 일자는 익월 게재 희망시 전월 3번째 주 금요일 이전까지 데이터 업로딩 요망 (ex. 2월호 게재 희망시 1월 18일 이전까지)
- 5. 단, 투고원고가 너무 많을 시 임의 편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6. 게재 문의. 02-2655-3131



2024년 1월

03 Headnote 새해를 맞아 드리는 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08 특집 2023 서울포토페스티벌 제8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최

54 전시광고 Pearl of the East - Sri Lanka, 동양의 진주 스리랑카 - 박대병(용인)

58 전시광고 마음 다스리는 군자의 음료, 그 멋과 향 나의 향기, 잊혀 가는 전통 茶禮 문화 - 정금화(강동구)

62 전시광고 렌즈로 보는 '순환의 섭리 자연의 얼굴' 시간의 경계를 중첩하다 - 이기복(수워)

64 전시광고 꽃 피워 열매 맺고...이어진 우리 사이 蓮, 緣(연) - 염미영(수원)

66 전시광고 볼 수 없는 것 보여주는 생명의 원천 얼음 속의 세상 - 김승훈(송파)

70 지상전 01 보이는 영역 넘어 마음 속 색채로... '현실의 반영과 변형' - 서성강(천안)

74 Photo Essay 01 3차원 공간 버리고 2차원 평면 취하다 Cherish the Time 시간 품은 및 & 색 - 송재운(광주)

78 Photo Essay 02 물아일체 物我一體 나도 그 풍광이고 싶다 동해를 품은 독도 - 박용득(구미)

82 Photo Essay 03 오늘 내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함이다 꽃의 언어 The Language of Flowers - 황여정(대전)

86 Review & Preview 이자벨 샤퓌 Vivant, Le sacre du corps 신성한 몸 - 김재훈

사진강좌 92 Photo Theory 중간톤 천연 색상 살리는 묘사력 '탁월'

고브제를 활용한 카본프린트 프로세스 - 김정현(진주) 96 Travel destination 동서고금 휘어잡던 능력 어디갔나

용의 퇴진 - 최승언 협회소식

100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06 Gallery 김승훈 개인전 외



2024년 2월

03 Headnote

새해 우리의 바램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08 특집 한국사진작기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사진작가과정 제3기 졸업전 개최 - 김의배

38 전시광고 편린들이 만나 하나된 완전체 상狀과 상象 - 박정숙(서울)

42 전시광고 제주 바당 - 그 생명의 빛 저 검은 바다가 세운 희망의 닻에게 - 김두철(제주)

9그러진 군중은 나를 비추는 거울 흐르는 삶 - 전철역에서 - 서경자(이산)

50 전시광고 창살에도 한복 춤사위에도 살아있다

우리의 멋 - 線과色 - 박균희(의왕) 54 지상전 01

침묵으로 허락했던 시간들 영혼의 파노라마 Panorama of the Soul - 김정식(강동구) 58 Photo Essay 01

FMOTO ESSAY UI 다시난 미륵사 서탑에서 무령왕릉까지 유네스코 문화유산 백제 역사유적지구 - 백만종(서초구)

62 지상전 02 벗는 게 아니고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본성 '누드' - 이한성(청주)

66 Photo Essay 02 고귀한 신의 창조물 나래쉬고 이 땅으로 뚜 루루의 꿈 ॥ - 김병철(원주)

70 지상전 03 밤새 대면하는 고독, 마침내 빛이 온다 기다림에 대하여 - 이광진(대구)

74 Review & Preview 위험한 곳 찾아 사람사는 냄새 '찰칵' 양승오 사진전-人間, 나와바리 - 김재훈

사진강좌 80 Photo Theory 젤라틴 바르고 티슈 입히고... 일곱 단계 공정 카본프린트 만들기 - 김정현

84 Travel destination 복돈 줄게 재앙되는 돈 줍지 말라 새뱃돈의 유래 – 최승언

협회소식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언계소식

111 Gallery 박균희 개인전 외



2024년 3월

01 추모의글

08 제 62회 한국사진 문화상 및 우수회원상 제 61회 전국회원작품 지상전 우수 작품상

44 전시광고 The forest in Jeju, Love come into bloom 제주 숲, 사랑이 피어나다 - 류미숙(울산)

48 전시광고 시끌벅적, 따뜻한 인정이 흐른다 시장 사람들 - 조미자(수워)

52 전시광고 고결한 창조주의 숨결 간직한 산&바다 내면의 풍경·Mindscape – 박해섭(제주)

56 전시광고 솔 그 아름다움 비바람 눈보라 속 '늘 푸른 나무' - 마석두(부산)

60 전시광고 기억의 저편 철장 너머엔 잃어버린 낙원이... 원초적 그리움 - 구미원(수원)

64 지상전 01 Approach with Unfamiliar Eyes 낯선 눈으로 다가서다 - 권기갑(제주)

68 Photo Essay 01 차별을 거부한다 등급이 없다 자유평등 무등산 無等山 - 최영태(광주)

72 Photo Essay 02 Be colored by the light 빛으로 물들다 - 장일미(평택)

76 지상전 02 하늘과 땅 맞닿은 그 곳에 홀로서기 나무가 있는 풍경 - 정일경(대구)

80 Photo Essay 03 얻은 것은 '자연 환경', 잃은 것은 '근심 걱정' 바다의 유목민 바자우족 – 박찬우(의왕)

84 Review & Preview
마리 사라이 개인전: NEW YORK-THE ABYSS
- 김재훈
사전강좌

90 Photo Theory 작가에 따라 '같은 사과, 다른 느낌' Pictorialisme 시대의 정물사진 - 윤은숙

94 Travel destination 카메라 24대로 달리는 말 '찰칵찰깍' 연속사진 창시자 '마이브리지' – 최승언 혐회소식

98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02 Gallery 박해섭 개인전 외



2024년 4월

01 추모의 글

10 전시광고 기억하는가 초원의 제국, 그들이 달린다 野馬 - The winds of grassland - 조영희(제주)

34 지상전 01 천상의 녹색계단 품은 베트남 이색 지대 Banaue Rice Terrace - 최차열(서산)

38 Photo Essay 01 환호하라 춤추라 광명의 새날을 ... '빛 & 色의 향연' – 박경서(서울중구)

42 Photo Essay 02

故 신호 선생님 '함께 한 추억의 촬영지' 백두산 천지 - 윤수희(의왕) 46 Photo Essay 03

Draw Time in the Silence of the Sea 침묵의 시간 머물던 그 바다에서 – 이승대(순천) 50 지사전 02

50 시상선 02 잃어버린 것들 찾아 돌담길로 시간여행 - 연도흠(관악구)

54 Photo Essay 04 열려 있어도 닫힌 고독의 공간 도시의 섬 island of the city - 원용호(인천)

58 Review & Preview Tokyo Rumando 개인전 - 김재훈 사진강좌

64 Photo Theory 무엇을 찍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주제를 위한 소재의 결정 - 조주은

68 Travel destination 생각하는 AI, 인간에 반기들까? 사진 & 인공지능 – 최승언 혀하스시

72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83 Gallery 조영희 개인전 외



2024년 5월

03 Headnote

30 전시광고

시대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05 특집 KYOTOGRAPHIE 2024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① 교토에서 본 세계 현대 사진의 흐름

인간과 자연이 어울린 나의 이야기 여행의 울림 - 이향룡(울산) 34 전시광고

- 빛과 시간 그리고 인간

자연의 빛과 소리 머금은 그 곳 오지의 사람 그리고 삶 - 류태석(고양) 38 전시광고

내 마음 깊은 곳 그리움은 추억이 되어... 바라보다 - 안순희(대구) 44 지상전 01 계획없이 만난 낯선 거리에 선 이방인

계획없이 만난 낯선 거리에 선 이방인 Capturing daily life 일상을 담다 - 김평산(중구) 48 Photo Essay 01

Spring Journey to Osaka, Kyoto, Nara in Japan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봄 여행 - 전실근(부산) 52 Photo Essay 02

풍경소리 울려퍼지면 찰나의 깨달음이... 절로 절로 저절로 - 유병용(서울)

56 지상전 02 백색 추위 속 푸른 꿈 간직하며... 겨울나무, 꽃피우다 - 김명옥(대구)

60 지상전 03 '나 홀로' 아닌 '더불어 가는' 여정 마음으로 모든 작가 무엇이는 청하면 - 구미숙(양천구)

64 Photo Essay 03 레드 계조 살리고 표현은 절제하고 니지톤 미니멀리즘 NJJI Tone Minimalism - 홍계표(대구)

68 Review & Preview 절제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상풍경 마르친 리체크 사진전 | 조화 HARMONY - 김재훈 사진강좌

74 Travel destination 그들이 온다 미래 인류 삶이 달라진다 자율주행 로봇 택시 - 최승언 협회소식

78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분과위원회 소식 및 회원동정 업계소식

13세조 84 전시

부처의 가르침 대중과 나눈다 제6회 한국불교전통사진전

86 Gallery 안순희 개인전 외



2024년 6월

03 Headnote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성원에 감사느립니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10 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현장스케치-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심사 대상에 이정애 작가 '희망을 품다' 운영위원평-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을 마치고 - 공병철 심사위원평-시각적 표현 뛰어난 작품 돋보였다 - 김정식 인터뷰 – "척박한 환경 속 삶의 의지 포착했다"

대상 수상작가 이정애
 Photo Essay 01
 2024년 교토그라피 관람기
 도심 곳곳에 전시관 기획력 '탁월' - 송정임(의왕)

60 지상전 01 낯선 거리 계획없이 만난 이방인 꿈의 실현 - 구명화(인천) 64 지상전 02

가뿐 숨소리 잠재우는 신비한 자연의 색채 산 그리메 - 손홍현(광주)

68 Photo Essay 02 없어도 넉넉하다 비울수록 아름답다 여백 - 이순우(제주)

72 Review & Preview Urban Chronicles: American Color Photography 도시연대기 - 김재훈 사진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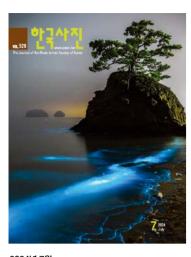
새는 두 날개로만 날지 않는다 왼손잡이와 꼬리날개 - 최승언 82 Photo Theory

78 Travel destination

예술사학자 하인츠 슈탈후트가 평가한 사진가 빛을 촬영하다 - 도 팔라디니 - 김정현 협회소식

86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4년 제2차 이사회 결과 2024년 임시총회 결과 협회소식 및 분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06 Gallery 흑백은염 사진전 외



2024년 7월

03 Headnote

'한국사진', 예술의 감동을 전달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선종백

2024 PASK AWARDS 제42회 대한민국사진대전 '화려한 개막'

故신호 선생 유작전 & 제자사진전 꿈을 꾼다 - 별이 된 열정, 작품으로 빛나다

42 전시광고 신들의 나라 노르웨이 대지의 꿈 - 박승호(용인)

46 전시광고 꽃처럼 살자 희망이여 피어라 화양연화 花樣年華 - 채금순(과천)

50 특집 KYOTOGRAPHIE 2024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2

56 지상전 01 열매 맺기위한 고뇌의 몸짓 뿌리 Root - 여동희(안양)

60 Photo Essay 01 세부 바다 마크로 촬영으로 만나다 작은 생명체 화려한 색감 - 김재영(상주)

64 지상점 02 디지털 카메라와 시로 만나는 느낌표 디카시 - 조현길(천안)

68 Photo Essay 02 마법에서 깨어나는 숲의 노래 물방울의 합창 - 김형선(제주)

72 Review & Preview 살아있는 야생 만나는 듯... 감각적 공간 연출 '압권' 프란스 란팅 '디어포나' 국내전시 - 김재훈 사진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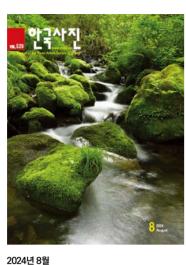
78 Travel destination 빛으로 그렸나? 진본 베낀 사본인가? 포토그래피와 사진 - 최승언

82 Photo Theory 계조 손보면 작품의 완성도 '껑충' 주제를 위한 톤의 결정 - 조주은 협회소식

86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및 부과위원회 소식 회원동정 외 언계소신

94 Gallery

故신호 선생님 유작전 & 제자 사진전 외



03 Headnote

46 지상전 01

우리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백만종

08 특집 4차 산업혁명시대 이끌 인재 키운다 '교육혁신' 재능대학교

34 전시광고 단절을 넘어서 실존을 찾아서... 벽의표정: Ⅲ - 사람도 풍경이다 - 유병용(서울)

38 전시광고 찬란한 봄, 한복입은 내 어머니 같은 꽃 모란이 피기까지는 - 이상섭(강남구)

42 전시광고 순수한 자연의 품, 깃들어 사는 삶 치악산에 안기다 - 강성구(서울)

맑은 영혼, 순수한 사람 사는 불국토 Tibetan nationality... Lives and Culture - 장재기(인천)

50 Photo Essav 01 새소리 청명한 능선 너머 구름바다 흐른다 대한민국 제일경 설악산 - 박광미(양산)

54 지상전 02 Culture of the land, Color of the life 색깔있는 촬영지 모로코 - 안성숙(동대문구)

58 Photo Essay 02 . 슬로셔터로 포착한 자연의 리듬

숨 breathing - 김선희(용인) 62 Review & Preview French Photography Today: A New Vision of Reality 프랑스현대사진 - 김재훈

사진강좌 68 Travel destination 채집해 먹던 인류, 왜 땅 파고 심었나? 농경은 '행복 끝 고생 시작' - 최승언

72 Photo Theory 너무나 매혹적인 정물사진 III 초현실주의 시대와 정물사진 - 윤은숙 현히소신

76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및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언계수식

100 Gallery 강성구 개인전 외



2024년 9월

03 Headnote

미래를 준비합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38 전시광고 찬란하게 빛나는 자연, 그 선율 속으로 내 마음에 담은 호주의 사람과 풍경전 - 권순형(시드니)

콩 하나, 콩 둘, 확장하는 디지털 픽셀 색에 잠긴 형태들 - 서성강(천안)

46 전시광고 한사전 초대·추천 작가 '작품' 한자리에 2024년 가람회 창립 3주년 展 - 가람회

50 전시광고 신선건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 신들의 나라, 히말라야 - 신선건(안양)

54 전시광고 임동일의 사진美學

새의 날갯짓 - 임동일(전주) 58 전시광고 목숨 걸고 만난 세계 제일의 미봉 히말라야 아마다블람 등정 10주년 기념 사진전

- 강덕문(진주)

62 전시광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 상상 想像을 그리다 image & imagination - 윤제관(양평)

66 전시광고 천년한지에 담은 김탑수 사진전 - 김탑수(전주) 68 KYOTOGRAPHIE 2024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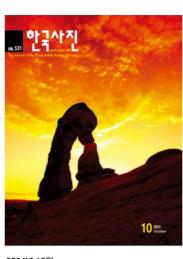
74 Review & Preview 빛나는 문화자산, 세계 사진 흐름 '한눈에' 동강국제사진제 - 김재훈 사진강좌

80 Travel destination 총 들고 아프리카로..."돛을 올려라" 노예무역 잔혹사 - 최승언

84 Photo Theory 주제와 소재 5 보여주는 방법의 연구 - 조주은 협회소식

88 Society News / Member Plaza 분과소식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98 Gallery 2024년 가람회 창립 3주년 展 외



2024년 10월

03 Headnote

새로운 기틀을 다져갑니다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김시묵 38 전시광고

한용상 사진전, 서산시문화회관 초대전 사진여행, 사계를 담다 - 한용상(서산)

42 전시광고 대립도 갈등도 초월하여 환하게... 존재의 빛 - 김민화 사진전 - 김민화(인천)

46 전시광고 손석윤 초대전, 월정사 성보박물관 초대전 聖山 오대산 이야기 - 손석윤(평창)

50 전시광고 먼 우주에 꽃씨 하나 전설로 남으리라 신들의정원 || - 이영숙(부천)

54 전시광고 숲속에서 동행을 배우다 image & imagination - 오홍균(인천)

58 전시광고 정완섭 사진전 및 출판기념회 머무르는 그곳 - 유럽, The place where I want to remind-Europe - 정완섭(익산)

62 전시광고 시간따라 공간따라 변화하는 물상처럼 화가의 시각으로 표현된 갓바위 사계 - 김재일(목포)

바늘구멍 너머 옛 생각 아련히.. Pinhole camera로 바라본 - 서낭당 - 이한숙(대구)

70 지상전 카메라 앞에 선 대한민국 예술계 거목들 "사람이 예술이다" - 박옥수(서울 중구)

66 전시광고

74 Photo Essav 01 선비문화의 산실, 이젠 유네스코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 백만종(서초구)

78 Photo Essay 02 예술혼 불어 넣는 튀르키에 화룡점정 카파도키아 - 정재문(이천) 82 Review & Preview

카트린 링커스도르프 ; 마이크로버스 - 김재훈 88 Travel destination

역사의 변곡점마다 짠 맛이 있었다 썩는 권력, 썩지 않는 소금 - 최승언 92 Photo Theory

작품의 유일성, 작가의 개성 살리는 수작업 디지털 시대의 고전프린트 – 김정현

100 Society News / Member Plaza 이사회 및 협회소식 회원동정, 분과소식

110 Gallery 김재일 작품전 외



2024년 11월

03 Headnote

변화의 완성을 위한 노력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유수찬

05 특집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16 특집 '2024 베이징 국제 사진 주간'서 한중 사진 교류 본회, 中 예술사진학회와 '업무협약' 40 전시광고

없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우주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를 만나다 - 정연수(수원) 44 전시광고

지혜롭고 강인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년의 초상 - 정민순(의정부) 48 전시광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불교의 인연이 계속되길... 천년의 숨결 - 송진용(화성) 52 전시광고

내 사는 그곳서 기록한 '바다 숲 나무 꽃' 자연에 마음을 얹다 - 김정희(울진) 56 전시광고

바람따라 흐르는 희망의 메신저 생명의 씨 - 김애란(안양) 60 특집

KYOTOGRAPHIE 2024-4 66 지상전

흑백 사진에 담은 그 시절 삶의 현장 장날 - 정정회(부산)

70 Photo Essav 01 무심코 스치는 풍광 잡아낸 '순간포착' FOSSIL OF PERSPECTIVE - 정명오 74 Photo Essav 02

AI와 함께 추적한 나의 뿌리, 나의 출발점 기억의 전이 - 윤은숙(경기광주) 78 Review & Preview

강은 흐르고 기억은 교차한다 제 2회 칠곡국제트랜스미디어축제 - 김재훈 사진강좌

84 Travel destination 관심은 '정권유지' 부강한 나라는 '뒷전' 백성은 가련해, 독재는 다 그래 - 최승언 88 Photo Theory

반 고흐 머물던 카페도... 도심 곳곳에 전시장 2024 아를국제사진제 - 조주은 현히소신

94 Society News / Member Plaza 협회소식 회원동정, 분과소식 업계소식 103 Gallery 김애란 사진전 외

2024년 12월 03 Headnote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준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최차열 30 전시광고

표지이미지 없습니다

구박갤러리 포트폴리오 초대전 빛과 그림자의 시 詩 해운대에 드리운 시간 - 하병철(부산) 34 전시광고

아뜰리에리 21 개관 기념사진전 Light & Moment #3 흰밤을 지새다 - 김민주(구미) 38 전시광고

대구 미래사우회 회원전 9인의 "바다 이야기" - 미래사우회(대구)

42 전시광고 Gallery 예·지·향 초대작가전 The Beautiful Earth 아름다운 지구

진주목걸이가 드리워진 아름다운 풍경 - 이호연(인천) 46 특진 제9회 대한민국사진축전

중국작가전 88서울올림픽 일상사진+청소년사진제 영월지자체전

대학교류전 74 지상전 인생고해 거칠어서 더 아름답다 노이즈 NOISE 재발견 - 김성백(광주)

78 Photo Trave 하루 두번 2.3km 바닷길이 열리는 신비의 섬 '제부도' - 임윤식(송파구)

82 Review & Preview 안준, 정현목 2인전 New Pictures - 김재훈 사진강좌

88 Travel destination '미제 좋아' 탄생한 듣보잡 국명 월남은 어쩌다 베트남이 되었나 - 최승언 현회소식

92 Society News / Member Plaza 2024년 제5차 이사회 결과 협회소식, 회원동정 외 업계소식

104 Gallery 미래사우회 사진전 외

제41회 제천 전국사진공모전

접수마감 2025년 2월 10일 소인유효











- ■출품자격 제한없음(대한민국 전 국민)
- ■<mark>작품내용</mark> 미풍양속에 저촉되지않는 국내외 미발표작
- ■작품규격 흑백 / 칼라사진 11x14인치(장정불요) (입상및 입선자 3000pix이상 제출)
- ■출품수량 1인 4점이내

(작품뒷면에 화제. 성명.주소,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접수마감 2025년 2월10일 소인유효
- ■<mark>접 수 처</mark> 충북 제천시 의병대로 247 행복한 사진공작소

■문 의 처

지 부 장010-3454-0102 사무국장 010-2667-2107

- ■심 사 일 2025년 2월 15일(토) 예정 (공개심사)
- ■심사발표 2025년 2월 17일
- ■시 상 식 2025년 3월 27일(목)
- ■작품전시 2025년 3월 27(목)~4월 1일(화)까지
- ■시상내역
- ▶금상1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상장 및 상금 1.000.000원
- ▶은상1점 제천시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은상1점 제천시의회 의장 상장 및 상금 500,000원
- ▶동상3점 예총 제천지회장 상장 및 상금 200.000원
- ▶ 가작 5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 ▶입선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장 상장 (총 풀품작 수의 20%이내-입상작 포함)

■기타사항

- 입상, 입선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점수 인정
- 입상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수상작을 향후10년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동일작품, 유사작, 기발표작으로 판명될 시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은 7년간 입회 불허함.
- ◎ 출품된 작품은 낙선작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출품자 전원에게 작품집 증정.
- ◎ 입선 및 입상작은 심사 발표 후 7일 이내에 원본 파일을 지정된 메일로 제출하여야 함(otterkang@naver.com)
- ◎ 상금 원천징수액 세금 및 수수료 발생할 경우 공제후 지급.
-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저작권분쟁,표절문제 발생시, 모든 문제는 응모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측의 결정에 따른다.
- ■주최/주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후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 /제천시의회 /제천 문화재단 /제천예총